

雄師團長에게 왜 그렇게 늦게 알려주었나 그랬죠?

○證人 蘇俊烈 그 이유는 그러니까 26日날 10時30分에 作戰會議를 하고 作戰會議 終了後에 이 作戰은 無期延期한다하는 기도비악을 위해서 措置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時인가 두時인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연락을 한 것은 31師團에게 주어진 任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 電話로 命令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5月26日날 作戰會議에 鄭 雄師團長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證人 蘇俊烈 참석시켰습니다.

○張石和委員 참석시켰어요?

○證人 蘇俊烈 예.

○張石和委員 鎮壓作戰 당시에 파악된 市民軍이 몇명이라 그러셨어요?

○證人 蘇俊烈 최초로 원래 파악된 道廳에 있는 사람들은 한 115名내지 120名정도...

○張石和委員 나중에 보니까...

○證人 蘇俊烈 나중에 보니까 300餘名이 왔는데...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鎮壓作戰에 동원된 部隊는 어느어느 部隊였습니까?

○證人 蘇俊烈 소위 특정 목표라고 세가 그때 規定했던 道廳하고, 道廳은 3空輸에서 警戒이 됐고요 66名인가 됐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외에 外廓封鎖作戰에 동원된 部隊까지 말씀입니까.

○證人 蘇俊烈 外廓에서 진입한 部隊는 20師團하고 31師團이고 진입한 다음에 그 外廓을 다시 封鎖한 것은 學校部隊입니다.

○張石和委員 결국은 31師團 20師團 戰敎司 7空輸 3空輸 11空輸 다 동원된 것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兵力이 2萬名가량이었지요?

○證人 蘇俊烈 그런데 空輸部隊兵力은 일개 旅團에서 한 60名정도 이렇게 特攻隊만 편성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部隊는 다 飛行場에 있었지요.

○張石和委員 그러면서 外廓封鎖作戰을 한 것이지요. 鎮壓作戰을 감행하면서...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결국은 2萬名이 다 鎮壓作戰에 直接, 間接으로 동원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市民軍이 한 삼사백명정도에 이 2萬名정도의 兵力이 가동됐다고 하면 결국은 過剩鎮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삼사백명 있는 그 곳은 소위 道廳같은 곳은 66名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이지요. 金宗培證人이 投降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까지도 총으로 사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殺戮作戰이었다 이런 證言을 했습니다. 證人은 거기에 대해서 證人이 指揮責임을 져야지요 결국은 이것이 殺人罪가 되는데...

○證人 蘇俊烈 그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죠.

○張石和委員 그 사실여부를 확인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證人 蘇俊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報告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찢러 죽이겠습니까?

○張石和委員 그러면 金宗培證人하고 對質審問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네요?

○證人 蘇俊烈 해야지요.

○張石和委員 그래서 밝혀지면 證人이 殺人罪로 책임을 질 수가 있지요?

○證人 蘇俊烈 直接的으로 제가 살인을 안했는데 어떻게 殺人罪를 집니까?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이 指揮責임을 져야 되겠네요?

○證人 蘇俊烈 그러면 전부 指揮責임을 軍隊의 指揮官은 다 처벌받습니까?

○張石和委員 證人이 指揮責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指揮責은 물론 있습니다 道德的으로... 있지마는 그것을 全的으로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張石和委員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證人은 그렇게 발뺌할 수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저는 죽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結果的으로 많이 죽은 것 아닙니까?

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거기에 대해서 證人이 반성을 안하고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作戰이 누가 成功이라고 하지만 제 자신은 성공이 아니다. 勳章을 받을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張石和委員 거기에 대해서도 問責받을 각오가 돼 있지요?

○證人 蘇俊烈 問責하면 받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아요. 또한 道廳鎮壓作戰에서 逮捕, 連行된 市民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고문한 사실을 여러 證人들이 또 證言을 하고 있는데 證人이 당시 戒嚴分所長으로서 그러한 不法行爲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예, 제가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合搜團 거기에는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張石和委員 이것이 바로 部下犯罪不鎮定罪라고 하는 것입니다. 軍刑法93條 여기에 대한 책임도 證人이 져야 되겠지요?

○證人 蘇俊烈 그러면 合搜團에서 고문한 것을 제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張石和委員 證人 摩下에서 일어났습니다. 證人이 戒嚴分所長으로 있는...

○證人 蘇俊烈 그것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法이 제가 책임지게끔 돼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矯導所 습격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무고한 사람 20餘名 사망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矯導所 습격이 아니라고 하는 金宗培證人의 證言이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사실.....

○張石和委員 그 점도 金宗培證人하고 對質審問해 봐야 되겠네요?

○證人 蘇俊烈 해도 좋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矯導所 습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證人이 또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게 一方的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20餘名の 무고한 市民들이 죽었

습니다.

○證人 蘇俊烈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質問하시면 제가 答辯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對質審問해서 證人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다음에 死亡者 數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證人이 民和委에서 證言할 때 死亡者 數字에 관해서 M16으로 死亡한 數字는 44名이라고 證人이 證言한 바가 있지요?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88年度 7월에 國防長官이 國會에 나와서 答辯하기를 M16으로 죽은 數字는 98名이다. 이렇게 우리 議員들 앞에서 答辯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려 54名 차이가 납니다.

○證人 蘇俊烈 그 문제도 아까 제가 잠깐 잘못했다는 報告말씀을 올렸습니까마는 최초 제가 法務參謀나 이렇게 報告받을 때는 그 數字의 報告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고 民和委에 나가서 報告한 것은 제가 그렇게 報告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8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答辯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張石和委員 이와같이 死亡者 數字에 관해서도 證人이 일부러...

○證人 蘇俊烈 일부러는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축소해 가지고 證人이 民和委의 證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체를 확인하는 작업할 때에 최초 報告를 그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民和委에서는 사실 그 말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때 朴玉在씨가 그 분이 갑자기 質問을 해서 제가 그렇게 答辯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이것이 지금 軍關係記錄에도 98名으로 나옵니다. 證人 못봤습니까?

○證人 蘇俊烈 98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證人이 虛偽 證言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때는 제가 이것을 몰랐으니

까요.

○張石和委員 왜 그 軍關係記錄도 못보고 나가서 虛偽證言했어요?

그런 것은 다 확인하고 나가서 證言해야지요. 어디 나가서 證言하는데...

證人이 이 자리에서 證言할 적에도 證人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와같이 虛偽證言하면...

民和委에 나가서 虛偽證言하고 이 자리에서 證人이 사실대로 證言하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辛基夏委員 그래야 나중에 國防長官되지.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證人이 民和委에서 道廳戰鬪에서 사망한 市民軍이 17名뿐이라고 證言했지요?

○證人 蘇俊烈 예. 17名입니다.

5月27日 마지막 作戰의 綜合的인 數字가 17名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렇게 證言하고 있는데 당시 「글라이스틴」美大使 發表에 따르면 道廳戰鬪에서 市民軍이 28名정도 死亡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證人 蘇俊烈 「글라이스틴」大使가 그렇게 발표한 것을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처음 듣습니다마는...

○張石和委員 85年6월에 안재훈 在美同胞와 「글라이스틴」美大使가 「인터뷰」한 그 記錄이 87年度 7月號 新東亞에 나옵니다.

美國과 國際的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證人이 정확하게 答辯해줘야 돼요. 17名이 맞습니까 28名 정도가 맞습니까?

○證人 蘇俊烈 17名이 맞습니다.

○張石和委員 결론적으로 證人이 民和委에서 虛偽證言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도 證人이 사실대로 證言한다고 國民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證人이 民和委에서나 國會에서나 모든 記錄을 精査하고 證人이 모르면은... 정확한 그러한 證言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證人이 80年度 年末에 훈장을 받았다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年末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훈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光州抗爭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직접 그 자체로써는 상관이 없지요.

○張石和委員 光州抗爭에 쌓은 功績하고 전부 다 쌓여 가지고 훈장을 받은 것이지요?

○證人 蘇俊烈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위에서는 그렇게 功績處理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1次 90명인가 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니 결국은 훈장받은 것도 光州抗爭에서 證人이 쌓은 功績까지 다 포함해서 훈장을 받은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張石和委員 결국은 證人이 光州抗爭에서 이와같이 많은 피해자를 死傷시킨 그러한 功績을 가지고 證人이 훈장까지 받았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證人이 그 훈장을 다시 돌려주고 國民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문책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훈장을 지금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왜 돌려줄 생각은 없어요? 그런 훈장이 무슨 떳떳한 훈장입니까?

○證人 蘇俊烈 光州民主化抗爭을 제가 진압하는 과정이 물론 잘못됐지마는 그것만 가지고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橫看島에 들어온 간첩체포사건이랄지 모든 것이 종합됐기 때문에 꼭 훈장 받았다고 해서 뭐가 좀 잘못됐다고 또 반납하고 이런 前例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張石和委員 光州抗爭으로 勳章을 받은 점은 자못된 것이지요?

○證人 蘇俊烈 굳이 光州抗爭만 국한시킨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無所屬의 朴燦鍾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시간은 21分입니다.

(場內騷亂)

○吳景義委員 民正黨에서 證人하고 뭐 되나 그렇게 야단들이야!

○權海玉委員 吳委員 왜 그래?

○吳景義委員 왜 그러다니 그러면 남의 黨에

서 同僚委員이 發言하는데 무슨 예의없는 얘기야!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해주십시오.

서로 訊問하는 동안에 피차 존경하면서 정중하게 訊問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은 證言을 해야지 同僚委員 發言하는데 그런 「야지」를 하고 있어요?

○權海玉委員 뻘어요.

○委員長 文東煥 吳委員 이제 그만كم 해주세요.

○趙洪奎委員 피의 문제를 다루는데 웃는 것이 어디 있어요?

(場內騷亂)

○吳景義委員 民正黨 한번 해보라고 내가 종일 떠들테니까...

○委員長 文東煥 이제 그만كم 해주세요.

朴燦鍾委員 訊問하는 시간입니다.

○朴燦鍾委員 蘇俊烈證人 저 朴燦鍾委員입니다.

22日 열시에 作戰指揮權을 인수하신 후에 天主教 光州大敎區長 尹洪熙大敎의 電話를 받으셨다고 아까 證言했습니다.

○證人 蘇俊烈 직후가 아니고 받았습니다.

○朴燦鍾委員 그 電話內容 중의 요지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요지는 같은 국민의 軍隊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朴燦鍾委員 무자비한 모습의 사례를 혹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아까 초기에 空輸團의 鎮壓이 過剩鎮壓이라고 인정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이 점은 尹興禎證人도 過剩鎮壓이라고 인정했고 空輸團 出身이 아닌 證人들은 다 지금까지 이것을 過剩鎮壓이라고 이 聽聞會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過剩鎮壓이라는 뜻은 過剩 自衛權行使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요?

○證人 蘇俊烈 저는 法을 잘 몰라서...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朴燦鍾委員 그것이 過剩 自衛權行使입니다.

그러면 證人이 작전지휘권을 인수하기 전에

配屬됐던 空輸部隊에 의한 過剩鎮壓行爲였지요? 주로 過剩鎮壓行爲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 配屬된 部隊는 證人이 作戰指揮權을 인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당분간 證人의 지휘아래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證人은 오늘 午前 이후의 證言에서 證人의 用語로 光州事態와 관계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 당시 戒嚴分所長으로서 戰敎司司令官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證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러면 저는 證人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過剩自衛權 行爲는 정당한 自衛權行使를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刑法과 軍刑法에도 正當防衛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過剩防衛 行爲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證人은 그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하면서 戰敎司司令官으로서 戒嚴期間中에 過剩鎮壓한 責任者와 部隊員과 指揮官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張石和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地域의 戒嚴最高司令官 指揮官으로서 이 過剩正當防衛權을 행사한 麾下將兵에 대한 刑事責任을 묻지 않은 것은 證人의 職務遺棄고 이것은 당연히 문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證人 蘇俊烈 그런데 過剩正當防衛의 시기가 제가 가기 전 아닙니까?

○朴燦鍾委員 前이지만 過剩行爲를 한 將兵이 여전히 상당기간 계속해서 證人麾下에 있었는데 尹恭熙敎主로부터 또는 기타 親戚이나 親知로부터 過剩行爲에 대한 항의를 받고서도 이것을 조사하려는 마음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이 證人의 지금 이 聽聞會에서 여러 시간에 걸친 일관된 태도입니다. 말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職務遺棄임을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제가 證人에게 개우쳐 드립니다.

다음 質問 24日 열네시에 誤認射擊이 있

었다고 했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날 31師團과 機甲學校部隊員間에 誤認射擊도 있었지요? 事件的 誤認射擊이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열時頃에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즉각 報告받으셨지요?

○證人 蘇俊烈 받았습니다.

○朴燦鍾委員 이 誤認射擊의 原因을 대체로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까?

가령 複合的으로 보아서 通信이 잘 연락이 안되었다든지 확인이 미비했다든지 作戰部隊間에 非協調가 있었다든지 指揮體系에 다소 그 순간에 혼란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朴燦鍾委員 이 誤認射擊으로 우리 귀중한 바로 將兵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誤認射擊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誤認行爲가 正當한 職務上의 필요한 절차와 점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誤認行爲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射擊命令을 현장에서 내린 그 각급의 指揮官과 그 책임없는 將兵들이 누구인지의 責任所在을 가릴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證人?

○證人 蘇俊烈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索出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당시 11空輸와 步兵學校教導隊와의 誤認射擊原因은 가장 주된 支配的인 원인이 步兵學校連絡將校의 연락「미스」였습니다. 연락을 步兵學校空輸部隊에다 해 주었어야 되는데 몇時 현재 11空輸가 나옴에니까 그것을 알아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通報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懲戒委員會에 回附가 되어 가지고...

○朴燦鍾委員 어떤 처벌을 받게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처벌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步兵學校內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朴燦鍾委員 證人! 제가 박절한 견해일지는 모르지만 空輸部隊의 過剩行爲에 대해서는 침묵해 버리고 證人麾下의 一般步兵部隊와 空輸部隊와의 충돌에 의한 誤認射擊에 있어서 非空輸部隊將兵에 대한 책임은 신속히 물었는데... 證人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問 陸軍史 戰敎司 부분에는... 證人の 이름으로 작성되어서 陸軍本部에 보고된 그 부분을 제가 일부 引用합니다. 기억을 도와드리지요. 初期 31師團의 指揮權紊亂이 있었다.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朴燦鍾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師團 指揮體系紊亂이라고 하는 것은 18日에 配屬된 空輸 7旅團 19日에 配屬된 空輸 11旅團 20日에 配屬된 空輸 3旅團 그 이후 21日에 配屬된 20師團 그중에 특히 空輸 3旅團의 旅團長들이 配屬指揮官이 31師團 師團長의 指揮體系를 紊亂시킨 이런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 質問은 이 기간에 證人이 말한 過剩鎮壓行爲가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過剩鎮壓行爲를 31師團長의 命令이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指揮系統의 紊亂이라고 여기에 적시된 것 아닙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鄭 雄將軍의 證言에 의하면 20日밤에 자기 麾下에 配屬된 空輸3個旅團에 대해서 無血鎮壓을 命令을 했는데 이 사실을 證人은 사후에 파악해서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證人 蘇俊烈 들었습니다.

○朴燦鍾委員 틀림없었던 사실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21日 16時에 31師團長 鄭 雄將軍 指揮權에 있던 空輸旅團 등에 대한 指揮權이 CAC 戰敎司司令官으로 전환된 데는 바로 이 無血鎮壓命令 그 전날밤의 이것이 영향을 준 면은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24日 鄭鎬溶將軍과

特戰司와 20師團의 이동을 서로 의논하셨다고 아까 證言했습니다.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틀림없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5月26日 오후 비행장에서 편종식大尉에 대해서 特攻組로 道廳에 진입해 들어갈 때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다시 재차 그 特攻組所在地에 가서 崔世昌將軍에게……

○證人 蘇俊烈 崔世昌將軍은 그 전입니다.

○朴燦鍾委員 전에 旅團長에게……

○證人 蘇俊烈 그 다음번은……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崔世昌將軍에게 당신이 職近上官이니까 이것을 편大尉組에게 또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일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틀림없습니다.

○朴燦鍾委員 誤認射擊에 있어서 通信方式을 아까 證人께서는 당시 有線으로 誤認射擊問題 말고 證人 휘하의 各級部隊間的 연락이 있어서 有線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그것이 AM방식이건 FM방식이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됐다 이렇게 證言하셨습니다.

○證人 蘇俊烈 아닙니다 AM방식이 아니고 전부 特戰部隊도 FM無電機가 있기 때문에 步兵部隊가 가지고 있는 FM과 다 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통하면 통하겠지만 주로 有線에 의존해도 충분할 수 있었다…

○證人 蘇俊烈 部隊가 固定配置되어 있을 때는 다 有線으로 가능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戰敎司狀況室에 空輸旅團의 指揮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證人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蘇俊烈 제가 뒤에 듣고 알아서 압니다마는 戰敎司狀況室에는 당시 7空輸旅團의……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狀況室에 설치했던 일이 있지요?

○證人 蘇俊烈 전체적인 狀況 空輸司令部의 무슨 소위 前方指揮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朴燦鍾委員 아니나 旅團의 旅團長이 거기

주재하고 실제로 指揮所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리고 特戰司騷擾事態鎮壓分析에 分析 및 敎訓이라는 報告書에 보면 당시 光州事態當時의 射擊統制 및 軍紀가 결여되어 있었다하는 스스로의 지적이 있습니다. 證人 그것을 보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지적을 그때 저희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것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이 일련의 몇가지 제가 證人에게 확인한 이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證人은 空輸旅團에 관한 限實質的 指揮監督이 불능한 상태 證人의 實質的 權限의 到達距離바깥에 있었다는 여러가지 징후들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의 軍歷을 軍歷을 제가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75년에 師團長하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리고 綜合學校 行政學校는 언제 오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師團長은 제가 77년에 끝마치고 陸軍本部作戰參謀部 次長을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하다가 綜合學校오셨고 그리고 戰敎司 司令官하시고 81년에 2軍司令官으로 가시고……

○證人 蘇俊烈 아닙니다. 陸軍參謀次長을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師團長을 全斗煥 盧泰愚 鄭鎬溶將軍보다 최소 3년을 빨리 師團長에 任命되셔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대충……

○朴燦鍾委員 證人은 그 세 將軍들보다도 6·25때 將校로서 開戰初期에서부터 아주 고생하신 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러나 그 당시 證人의 行政學校長이라는 그 補職은 대단히 박절한 質問입니다마는 그자리에서 잘 해야 管區司令官으로 나가거나 豫編하셔야지요?

○證人 蘇俊烈 뭐 一般的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후배인 이 세 將軍은 80年 5月에는 아를데면 떠오르는 별들입니다. 대단히 외람되지만 證人께서는 사라지는 별이었습시다. 指揮權 指揮權해서 우리 委員들이 證人에게 물은 것이 별개의 아주 표나는 指揮所를 설치해서 2元化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證人の 指揮權은 戒嚴을 물戒嚴이라고 일부 將軍出身들은 얘기합디다마는 司令官께서도 당시에 證人은 司令官으로서 좀 그러한 물령물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指揮體系的의 二元化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證人 蘇俊烈 저는 軍生活를 통해서 그와 같이 생활을 안했습니다. 누구한테 指揮權을 침해 당하거나 저에게 주어진 어떤 저의 임무를 누구에게도 침해 안 당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러한 몇가지 징후들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판단을 第3者 여기서 지켜보는 國民들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05保安隊와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證人이 작성한 戰敎司 作戰處의 作戰日誌에 의하면 5月 20日에서 24日에 505 保安部隊 部隊員 全員 士兵將校함해서 95名이 作戰에 동원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日에서 28日까지는 104名 全員이 동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잘 모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기록에 있는데 證人의 이름으로 작성된 文書입니다. 505保安部隊要員 全員이 5月20日에서 28日까지...

○證人 蘇俊烈 임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임무가...

○朴燦鍾委員 動員部隊 配置에 동원된 병력에 空輸旅團 20師團 31師團 各 直割隊 쪽 소요 병력 쓰여져 있는데 505保安部隊가 적혀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保安部隊兵力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朴燦鍾委員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證人하고 戰敎司司令官인 證人하고 505 保安部隊長하고는 직접적인 上命下腹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아까 證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蘇俊烈 體系上으로는 그것도 配屬部隊입니다.

○朴燦鍾委員 그리고 가능한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사후에 證人에게 報告한다...

○證人 蘇俊烈 그당시에는 그랬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保安部隊의 職能으로 봐서 중요한 상황 그 5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光州市內의 民心의 동경 部隊의 이동 證人이 말하는 市民軍의 동향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합을하는 기능과 역할을. 역시 保安部隊가 하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그런 임무도 하는데 그당시는 많은 연행자 이런 사람들 하느라고 아마 상당히 신경을...

○朴燦鍾委員 그러나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情報蒐集業務도 해야지요?

○證人 蘇俊烈 예. 그분들의 본연의 임무이지요.

○朴燦鍾委員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당연히 保安司令部 서울에있는 本部에 이들이 報告할 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尹興禎證人은 이자리에서 사기는 空輸部隊까지 示威鎮壓에 투입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정한 일이 전혀 없고 따라서 자기로서는 戒嚴分所長인 자기로서는 空輸部隊와 20師團 增派를 陸軍本部에 요청한 일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맞을 겁니다.

○朴燦鍾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午前에 李煥性證人은 이 자리에서 어딘가 그 對象을 지칭은 안했습니다마는 20師團派遣은 要請에 의해서 派遣命令을 내렸다 要請에 의해서 派遣命令을 내렸다 이것은 우리 國會가 訊問構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구 要請이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同僚委員께서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조립을 하면 尹興禎將軍은 당시 戒嚴司分所長 그 責任者로서 空輸部隊나 20師團增派를 要請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李煥性總司令官께서는 누군가의 要請에 의해서 20師團을 파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證人의 軍經驗과 尹將軍 後任者로

서 戒嚴 그 地域의 責任者로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형식상 指揮部인 戰敎司令官 2軍司令官 陸軍參謀總長 이 體系外에 그당시에 軍의 實勢의 實質的 指揮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글썩요. 거기에 대해서는...

○朴燦鍾委員 제가 묻지요 그러면 505保安部隊의 增派의 절실성같은 報告에 의존했거나 아니면 이미 20師團 派遣 이전에 李煥性 證人の 말대로 하면 20師團 派遣 이전에 派遣됐던 7空輸旅團과 11空輸旅團의 책임자나 作戰關係者들의 직접 서울에 空輸特戰司令官에게 요구하거나 이 두개의 體系중에 어느 하나가 이와 같은 增派를 결과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尹興禎將軍이 司令官이었는데 部隊增派를 요청 안 했다 하는것도 尹興禎將軍의 얘기이고 또...

○朴燦鍾委員 尹興禎將軍의 證言은 證人은 들으셨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5月20日에서 22日 23日 24日 26日 27日 이렇게 해서 證人이 작성한 證人 部隊 證人の 名義로 작성된 戰敎司 作戰日誌에는 이 戒嚴을 위해서 出動한 兵力의 數가 名數까지 나와 있습니다. 士兵과 將校의 數까지 대별로 日平均이 1萬2,000名으로 推算이 됩니다. 兵力數가...

좋습니다. 1萬2,000名 전후입니다. 그런데 바로 戰敎司가 작성한 光州騷擾事態分析 敎訓集에는 作戰期間 7日間 動員兵力 1人當 所要彈藥 實彈이 59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證人 蘇俊烈 알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석을 했는고 하나가 彈藥의 過多消費가 問題點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59發을 日平均 최저로 잡아서 1萬2,000名을 곱하면 70萬發이 支給이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많은 數의 彈藥이 支給되어서 적어도 70萬發이 사용된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鍾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證人의

5月26日 밤에 「헬리콥터」로 光州一圓을 정찰을 했더니 죽음의 도시처럼 조용했고 初期 사흘간의 過剩鎮壓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國民을 상대로 示威鎮壓을 하는데 70萬發이 최저 소모가 되는 이런 示威鎮壓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우선 22日서 부터 27日間에 1日動員兵力이 1萬2,000名이라고 하셨지요?

○朴燦鍾委員 平均해서 그래요.

○證人 蘇俊烈 1萬2,000名이 動員될 수가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보세요. 5月20日 將校 1,015名에.....

○證人 蘇俊烈 그것은 전체 兵力現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動員兵力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空輸部를 하고 20師團을 다 합해도 7,000名인데 1萬2,000名이 어디서 나오니까? 여기에는 行政兵力도 있을 것이고.....

○朴燦鍾委員 出動 兵力 現況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證人 蘇俊烈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요.

○朴燦鍾委員 그러면 또 좋습니다. 空輸團의 作戰日誌에 의하면 21日 하루에 3空輸團에 40萬發의 彈藥 7空輸에 80萬發의 彈藥이 支給이 되었습니다.

이 支給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압니다. 다 사용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2個의 部隊의 것만 합해도 120萬發인데 좋아요. 證人! 1人當 所要 彈藥 59發 이렇게 해서 支給된 것도 많을 뿐 아니라 소모된 것도 많은데 제가 最終 質問으로서 이것이 우리 自國 國民의 示威鎮壓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일이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證人 蘇俊烈 우선 兵力과 彈藥의 消耗基準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게 되면 總兵力이 1萬 1,675名입니다. 전부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行政兵力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22日서 부터 26日까지는 作戰도 없었는데 어디에 가서 作戰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59發 平均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朴燦鍾委員 證人! 보세요.

外廓에 배치도 되어 있었고 保安部隊要員까지 1日 報告로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5月26日 光州敎區의 金성룡神父께서 자진해서 武器返納 시간의 여유를 하루를 더 달라 이렇게 戒嚴當局과 접촉했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26日입니까?

○朴燦鍾委員 예.

○證人 蘇俊烈 26日 그런 사실이...

○朴燦鍾委員 戒嚴司에서는 26日 子正까지 모든 市民軍의 武器를 返納措置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金神父께서 이른바 죽음의 행진...戒嚴軍이 있는 戰車 「탱크」있는 데까지 자진해서 걸어가 가지고 이 취지를 설명하고 戒嚴責任者와 만나서 26日 子正까지는 너무 촉박하니 하루를 더 여유를 달라 라고 교섭을 했다고 하는데 證人이 報告 받으셨나요?

○證人 蘇俊烈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道廳內에 그 당시에 證人의 판단으로서는 130名 내외의 市民軍이 있었고 어떻게 그것이 穩健派진 어떻게 學生들 4名이 협력해서 本館에 들어가서 宿營을 제거할 정도였고 또 5,000挺의 武器가 물려나갔지만 큰 사고가 없었고 또 容共分子를 學生 市民軍이 체포해서 戒嚴當局에 인계한 일도 있지요?

○證人 蘇俊烈 있었는데...

○朴燦鍾委員 이런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證人께서 27日 00時에서 시작한 그 시간을 證人의 재량으로 더 늦출 수 없었나요?

○證人 蘇俊烈 그것을 늦추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證人께서 누누이 責任을 지켰다고 했는데 만일 그 責任을 통감하신다면 제가 첫머리에 지적한 그 責任 部分에 대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豫備役 陸軍大將다운 責任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朴燦鍾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朴燦太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時間은 20分입니다.

○朴燦太委員 지금 하도 사태가 여러 가지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는 뜻에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光州事態가 발발된 것은 5月18日이고 그래서 20日까지는 격렬한 示威는 있었지만 死傷者는 거의 발생이 안되었지요. 20日까지?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燦太委員 그러다가 21日 午後 1時半에 道廳앞에서 大的인 發砲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도 그 道廳앞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戒嚴軍하고 市民 示威隊들 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날 발생한 死亡者가 約 60餘名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燦太委員 그리고 21日 다음 날 그러니까 22 午前10時에 證人께서 戒嚴分所長으로 취임을 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太委員 그 뒤 부터는 證人아까 證言하시는 것을 들으니깐 27日 새벽에 소위 마지막 鎮壓을 할 때까지는 그 市內에서는 戒嚴軍이 전부 撤收해 있었고 警察은 물론이고 軍人도 모두 撤收해서 市內에는 軍人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蘇俊烈 사실입니다.

○朴燦太委員 그래서 證人께서는 어떻게 해서 라고 설득을 통해 가지고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燦太委員 그런데 死亡者가 발생한 날자별로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21日 최초로 한꺼번에 많은 死亡者가 발생했고 22日도 死亡者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고 23日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軍이 光州市內에서 완전히 撤收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이 死亡者가 발생한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데 그것은 外廓에... 예를 들면 小태洞에 있는 11空輸에서 버스射擊關係 그 때도 한 10 몇 명이 射殺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外廓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光州市內에서의 충돌이 아니고...

○朴燦太委員 그러니까 市民示威隊들이 市內뿐만 아니라 外廓으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外廓의 軍部隊 空輸部隊를 攻擊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矯導所關係... 22日 矯導所가 있지 않습니까? 22日...

○朴煥太委員 지금은 공식으로 뒤에 검시를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日에 29名이 死亡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死亡者가 軍은 이미 市內에서 撤收를 했는데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蘇俊烈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날짜 별로 꼭 보고요 사실 그 때 제가 직접 경험했던 바를 비추어 가지고 보면 분명히 여기에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朴煥太委員 아니 아까는 市民軍들이...

○證人 蘇俊烈 아니 23日 그것은 분명히 있었고...

○朴煥太委員 23日?

○證人 蘇俊烈 예.

○朴煥太委員 23日도 보면 24名이 死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그러니 그 數字가 거기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어디를 攻擊해 왔습니까?

○證人 蘇俊烈 23日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所臺洞에서 15名인가 市民軍이 다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矯導所關係에서 아마 몇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朴煥太委員 23日 矯導所를 攻擊해 왔다는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23日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예. 그러면 좌우간에 마지막 鎮壓作戰을 할 때까지는 戒嚴軍은 市內에 들어가서 示威隊하고 충돌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전연 충돌이 없었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렇다면 이 死亡한 사람들은 좌우간 外廓으로 나와 가지고... 軍이 外廓을 警備하고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外廓에 있었습니다. 市內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朴煥太委員 아 예. 外廓에서 軍과 충돌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朴煥太委員 檢屍를 한 것을 보면 檢屍라고 하는 것을 屍體를 그 뒤에 關係者들이 확인하는 건데 「카아빈」小銃에 맞아서 死亡한 사람하고 M16에 맞아서 死亡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證人 蘇俊烈 됩니다.

○朴煥太委員 어떻게 됩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彈알이 들어가고 나간 그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확인됩니다.

○朴煥太委員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카아빈」에 맞은 것은 어떻게 되고...

○證人 蘇俊烈 「카아빈」은 들어간 구멍이 크고 나간 구멍은 없고 M16은 나가서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됩니다.

○朴煥太委員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까?

○證人 蘇俊烈 예. 워 人員만 하더라도 무려 전부 합해서 한 49名이 동원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朴煥太委員 예. 그 당시에 死亡한 사람들의 檢屍를 한 결과를 보면 「카아빈」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28名 M16에 의해서 死亡한 사람이 98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카아빈」에 의해서 死亡한 28名 이것은 戒嚴軍의 銃擊에 의해서 死亡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오신 證人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證人 蘇俊烈 맞습니다.

○朴煥太委員 그 당시 戒嚴軍은 그러면 「카아빈」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現役軍人에게는 「카아빈」이 없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러면 「카아빈」에 맞아서 死亡한 28名은 적어도 戒嚴軍의 發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證人 蘇俊烈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朴煥太委員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틀림없습니다.

○朴煥太委員 아까 同僚委員들께서도 물으셨을니다마는 그 마지막 鎮壓作戰의 時期를 좀 더 늦출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市民들 스스로 武器를 버리고 武力

을 쓰지 않더라도 이 事態가 鎮壓될 그런
기미는 없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對話가 그때 두절되어 버렸읍니다. 25日부터는 소위 그 강경한 市民軍에 의해서 道廳이 장악되어 가지고 對話는 거의 거기서 안되게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염려했던 것은 이것을 늦추게 되면 抵抗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더욱 강해져 가지고 다음 수습하려고 하면 더 피해가 커진다 이것입니다. 그때가 딱 고비지요.

그 다음에는 道廳地下室에 있는 막대한 量의 폭발물 이것을 딱 그때 제거를 시켜서 그 「타이밍」을 맞춘 것 그리고 태다수 光州 市民들이 들어 오기를 바랬읍니다. 제가 많은 電話도 받았읍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는 外部地域示威隊와의 연결을 그때 나는 地域에서도 상당히 示威가 있었읍니다. 光州뿐만 아니라 각 地域에서...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확산됐을 경우에는 北僞의 도발도 배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 5日 對話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이것을 더 遷延시키면 결국 光州 市民들이 그렇게 괴롭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생을 줄여서라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충정이었읍니다.

○朴燾太委員 그 앞의 날인가 바로 하루 전 날인가 大統領이 光州에 오셔서 談話를 발표 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25日입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그 談話發表한 뒤에 얼마있다가 作戰을 開始했읍니까?

○證人 蘇俊烈 談話發表로부터 24時間이후입니다. 아마 30時間이 넘겠습니다.

○朴燾太委員 30時間.....그런데 大統領이 談話를 발표했으며 그래도 좀 반응을 며칠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래서 그 반응도... 그런데 어떤 談話를 발표해도 그때 市民들은 물론 호감이 가는데 道廳을 점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戒嚴令을 解除하라! 또 崔圭夏過渡內閣물러가라! 金大中씨 釋放하

라! 뭐 全斗煥씨 어떻게 하라! 이런...

○朴燾太委員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그런데 지금 市民示威隊하고 對話가 두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對話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전부 다섯번 對話를 했읍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對話는 최초는 제 자신이 직접 했읍니다. 그리고 여덟가지 條項을 다 들어 주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가서 市民들을 說得을 하고 또 그때는 穩建派 學生들도 상당히 거기에 동조를 해서 상당히 希望도가 컸읍니다.

그런데 한 2·3日後가 되니까 金宗培 學生이 委員長이 되어 가지고 各部署를 전부 任務를 부여해 가지고 그다음 부터는 뭐 끝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싸우겠다는 그 의지를 지난 번에 여기 와서 말씀하신 대로 原子彈이라도 있으면 戒嚴軍에게 던지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朴燾太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證人判斷으로도 마지막 鎮壓作戰의 時期는 잘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早期에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朴燾太委員 아까 證人께서는 마지막 鎮壓作戰이 人間的으로 생각할 때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요는 17名이라는 死亡者를 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人名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 作戰自體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결과 17名정도의 死亡이 생기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뭐 전연 예측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小貧大失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光州 市民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써 作戰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軍의 指揮官으로서 이런 독단의 생각을 했읍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면 이 鎮壓作戰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犠牲者가 어느정도 나리라고 당시 생각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때에 저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한데 거기에 決定的인 「키이」는 3空輸의 特攻組의 活動如何...

○朴燾太委員 알겠습니다. 數字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17명까지의 이런 많은 犠牲者가 나리라고 생각은 안하셨다 이런 이야기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그리고 3空輸에서는 지금도 4명으로 분명히 지금 확실하 믿고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예. 그런데요 어째서 예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많은 人名被害 17명이나 死亡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軍에서 어떤 점을 생각을 안 했는데 현실의 作戰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희생이 커졌다 제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그런데 이제 부득이 射擊을 할 때는 이 下腿部를 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희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떤 精神的으로 자제했다고 그럴까 이것은 그때 사실 했습니다. 만약에 無慈悲하게 했다면 道廳에서 상당한 犠牲者가 났을 것입니다.

○朴燾太委員 抵抗도 안하는데 一方的으로 攻擊을 한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抵抗이 왜 없었습니까? 거기에 射擊이 무척 나왔습니다.

○朴燾太委員 市民軍 쪽에서도...

○證人 蘇俊烈 그리고 우리 軍人들도 셋 죽고 그리고 負傷者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朴燾太委員 市民示威隊들도 武力으로써 抵抗을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그런데 一般市民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성공의 한 요인이 됩니다.

○朴燾太委員 아까 空輸團하고 步兵學校教導隊하고 誤認射擊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誤認 사격이 된 經緯를 그 상황 어떻게 해서 誤認射擊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證人 蘇俊烈 한마더로 요약하면 그 전날 그러니까 23日 午後에 제가 空輸部隊를 飛行場으로 철수시키고 20師團을 대신 交代하도록 이렇게 이제 作戰協議를 해서 命令을 下達했는데 步兵學校 連絡將校가 그 南平쪽에 있는 차단되어 있는 教導隊에다가 11空輸가 철수하는 時間을 거기에 交叉地點이 있지 않습니까? 通過地點 여기에다가 通報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었읍니다.

○朴燾太委員 안됐는데 거기서 이제 兵力이 막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오는데 사실 20師團 兵力이 들어가다가 「트럭」이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논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市民軍이 근접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뒀는데 11空輸가 이렇게 나오니까 道廳狀況本部에서 市民軍의 狀況本部입니다. 指示를 해가지고 亞細亞自動車에서 탈취한 「샤프」車 그것이 兵器修理車입니다. 거기다가 兵力을 싣고 바로 「커브」도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사격을 했어요. 空輸部隊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갑자기 사격소리는 나지 APC는 나오지 步兵學校에서는 전혀 연락은 없었지 해서 그렇게 誤認이 된 것입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면 그 자리에서 空輸團과 步兵學校 兵力만 있는 게 아니고 示威隊 武裝兵力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示威隊에서도 사격을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그러면 3派戰이라고 그럴까 3面 銃擊戰이 벌어진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런데 아까 無反動銃이라는 대포를 쏘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대포까지 쏘야 됩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데 90mm 無反動銃이 教導隊의 教育裝備이지요.

○朴燾太委員 왜 쏘느냐 이말입니다. 사람보고 쏘습니까? 뭐 다른...

○證人 蘇俊烈 APC를 쏜 것입니다.

○朴燾太委員 APC라는 것이 裝甲車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裝甲車가 오기 때문에 裝甲車는 一般 小銃으로 쏘아서는 안되니까 無反動銃이라는 대포를 쏘다 이런 얘기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아까 저는 사람 보고 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證人 蘇俊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타고 있던 大隊長이 팔이 달아났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런데 이러한 相對方에서 武裝 攻擊隊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裝甲車까지 이렇게 몰고오는 판에 그것을 上部에다가 電話를 해가지고 총을 쏘까요 안쏘까요 이렇게 承認을 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이 이제 正常的인 狀況이라면 그와 같이 承認을 받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확인을 더 하고...

그런데 그때에는 아까 31師團 兵力과 機甲 學校하교의 誤認射擊도 그 중간에 市民이 쏘는데 自動車가 급히 오니까 機甲學校에서 쏜 것입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지금 示威隊에서 발포한 총소리는 나고 사격이 개시되었고 그러자 이 裝甲車가 이쪽을 향해서 오는데 이러한 급박한 狀況下에서 上部에다가 承認을 받는 것이 軍에서 하는 통상의 예입니까? 승인받을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現地 指揮官의 狀況判斷에 의한 결심에 따라서입니다.

○朴燾太委員 그 자체가 무슨 不法行爲는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아까 矯導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證人이 戒嚴分所長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교도소 습격이 있었다는 報告를 들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報告를 받았습니니다.

○朴燾太委員 그 뒤에 또 證人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 교도소 습격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부 여섯 번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틀림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틀림없습니다.

○朴燾太委員 그것이 전에 어떤 證人 訊問過程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교도소를 습격한 것이 아니라 21日 道廳의 총돌 이후에 戒嚴軍이 市內에서 철수를 하니까 그 勝戰 승리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示威隊를 교도소를 지키던 軍人들이 발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저도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聽聞會의... TV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常識的으로 있기 어려운 문제인데 한 두 번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거기가 空輸3旅團이 배치가 되어 있고 교도소에도 自體 警戒兵이 있고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 통과를 하려고 했겠느냐... 그것이 여섯 번이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것은 역시 교도소를 습격하는 일환이 아닌가...

○朴燾太委員 그 교도소 근처에는 高速道路도 있고 또 非鋪裝道路도 있고 한데 그 非鋪裝道路를 따라서도 공격을 해왔다고 그런데 그런 報告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데 그것은 非鋪裝道路를 통과하기도 전에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그 「바리케이트」까지 와서...

○證人 蘇俊烈 이제 「바리케이트」까지 오고...

○朴燾太委員 그리고 通常的인 길 뿐만 아니라 교도소 주변에 있는 논밭을 통해서도 공격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報告는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한 200m 정도까지는 접근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길이 아닌 곳을 따라서...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그리고 그 당시 그 矯導所를 습격했다고 그럴까 그 이후에 말이지요. 「칼빈」 실탄의 彈頭가 矯導所 안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은 證人이 報告들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報告 못 받았습니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칼빈」의 彈頭라는 것은 아까 얘기 했드시피 역시 이것은 市民

示威隊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총을 쏜 그 彈頭가 矯導所안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報告를 직접 들은 일은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직접 못 들었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리고 이 矯導所를 습격한 示威隊들이 기관총도 가지고 왔고 또 소방차까지도 가지고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朴燾太委員 그런데 勝戰報를 알리러 가는 사람들이 소방차에다 기관총까지 이렇게 무장을 해서 갈리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래서 저도 이것은 矯導所를 습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朴燾太委員 그 소방차라는 것은 그 소방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사다리 같은 것이 矯導所를 습격하는데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소방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빨간 「트레이닝」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餘名이 차를 앞세우고 가는데 앞을 督戰을 하는 것 까지도 봤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朴燾太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朴燾太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金泳鎭委員 20分동안 訊問에 주십시오.

○金泳鎭委員 방금 證人께서 同僚委員들의 訊問에 證言하는 그 內容중에서 한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月9日 鄭鎬溶證人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이 사실은 지금 證人이 證言한 바와 같이 완강히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5月 抗爭期間 동안에 武裝「헬」機가 분명히 현장에 出動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당시에 戒嚴分所長을 맡은 證人은 방금 앞서 同僚委員들의 그 答辯을 통해서 武裝「헬」機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蘇俊烈 사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金泳鎭委員 武裝「헬」機를 이 抗爭期間 동안에 出動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헬」機를 통해서 光州市民에 대해서 威壓을 가하고 그리고 사격한 일은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사격은 한 일이 없고 확실히 敎訓集에서 제가 이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敎訓集이라는 것은 各 分野別로 航空團에서 그것을 만들어 왔는데 支援要請이 있었다 하는 項目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H 攻擊用 「헬리콥터」를 支援要請을 했는데 날아가 보니까 標的이 부정확하고 거기에 또 民間人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사격을 못 했다 하는 것이 敎訓集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실제 제가 赴任한 이후에는 攻擊用 「헬리콥터」를 運行할 일이 없었습니다. 運行할 일이 없고 또 그런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金泳鎭委員 31師團 航空隊에서 가지고 있는 AH-IJ라고 하는 이 航空機 분명히 「코브라」 攻擊用 「헬」機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이 「헬」機가 방금 證人이 얘기하고 있는 이 軍事研究室에서 제작한 光州騷擾事態 分析資料를 보면 열아홉 時間 동안 무려 비행을 했고 그리고 命에 의해서 空中火力支援을 했다고하는 根據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재 책임자인 證人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否認하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러니까 제가 赴任한 다음에는 光州에서 兵力이 다 빠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전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金泳鎭委員 光州 現地에서 앞으로 올라올 證人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물겠습니다.

도청 진압 작전을 준비중이던 5月26日 문제의 마대가 3萬5,000에나 되는 양이 城南飛行場에서 光州飛行場으로 무려 2회에 걸쳐서 긴급 공수가 됩니다.

이 마대는 누가 요청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고 報告도 안 받았습니다. 요청을 參謀系統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指揮官까지는 안 올

라옵니다. 그런 部隊 보급품에 대한 소요판단 실지 請求行爲 이와같은 것은 參謀선에서 하기 때문에...

○金泳鎮委員 鄭鎬溶證人의 證言에 의하면 당시 戰敎司 司令官이 現場 指揮官에게 확인하면 분명히 알수 있다 여기 해당 速記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證人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마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마대는 주로 市街戰을 할 때에는 마대가 상당히 절대필수품입니다. 도로변에서 만약 경계한다고 할때에도 땅을 파기 어려우니까 그 옆에다가 마대로 경계를 만들고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진지구축을 위해서는 마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本委員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대를 空輸要請한 시점이 5월 26日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光州를 鎮壓하기 위해서 평정하기 위해서 나간 당시에 휴대품으로 가지고 갔다면 진지를 구축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한다고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5월 26日 밤에 空輸해서 3萬5,000枚의 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대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몇가지 證據를 제시하겠습니다.

상무총정作戰을 검토할 당시 崔圭夏大統領은 光州를 방문해서 진압작전을 보고를 받을 때 수천명의 희생자가 날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周永福長官도 이 진압후에 鄭鎬溶司令官과 얘기하면서 당시 國防長官이면 軍의 專門家입니다. 500名 이상의 사망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大統領이 수천名 그리고 國防長官이 최소한 500名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證人은 戒嚴分所長으로서 道廳鎮壓作戰을 유혈로 강행을 하고 그리고 3萬5,000枚의 마대를 바로 진압작전 하루 전날밤에 城南飛行場에서 긴급공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임시 가매장을 했던 현장에서 바로 흩어진 시신들을 담아서 가매장을 해서 옮기고 또한 지원동에서 17名의 良民을 학살한 현장에서 바로 1年後에 2구의 시체가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軍 部隊가 출동해서 마대를 가지고 와서 흩어진 시신들을 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류품도 마대에 담고 또 부근에 있는 모든 주위의 흙까지도 마대에 담아서 어디론가 운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모든 제반 증거나 정황으로 보아서 26일밤에 긴급 공수된 3萬5,000枚의 마대는 光州市民을 무참하게 학살할 가상하에서 단정을 짓고 공수했다는데 證人은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大統領께서 1,000名 國防長官이 500名 그런 분들은 光州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다만 하나의 가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제가 직접 責任者로서 모든 것을 파악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마대 문제를 26日 공수했다고 그랬는데 공수특공대는 마대가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마대를 어떻게 메고 가겠습니까? 金委員님 말씀대로 많은 사상자가 나면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바로 證人이 作成한 光州소요사태진압과 그 교훈집 110「페이지」에 보면 3萬5,000枚의 마대를 城南飛行場에서 光州飛行場으로 2회에 걸쳐서 공수를 직접 해옵니다.

그런데 空輸部隊特戰司令官인 鄭鎬溶證人도 이런 것을 완강히 부인을 하고 바로 이 유혈사태를 지휘했던 證人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 과연 이 마대가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證人 蘇俊烈 이 사실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한 진위는 규명을 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本委員은 光州 최후 진압작전 즉 상무총정작전 계획과 그 作戰實行 과정에 대해서 證人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證人은 27日에 유혈 진압 상무총정작전계획을 정확히 언제 陸軍本部에 건의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陸軍本部에 건의한 것은 아니

고 승인을 받았지요.

○金泳鎮委員 언제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陸軍本部總長님한테 報告한 것은 26日 10時頃입니다. 行動은 27日 이고요.

○金泳鎮委員 그런데 서울에 있는 軍首腦部에서는 證人이 현재 부임하기도 전인 5月21日 午前 바로 李煥性 戒嚴司令官室에서 그리고 23日 새벽 6時에 擴大戒嚴會議를 통해서 또 5月23日 午前 8時50分에 李煥性戒嚴司令官室에서 상무총장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首腦部와 會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蘇俊烈 모릅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5月20日 午前 陸軍本部에서 1次會議에서 戒嚴軍을 光州 시내로 부터 외곽으로 철수해서 再配置를 한다 그리고 이 바로 會議에서 自衛權 發動을 한다 즉 市民에게 발포하라고 하는 發砲命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會議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證人 蘇俊烈 서울에서 입니까?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목도소탕작전은 5月23日 이후에 命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것이 바로 證人이 現場에 戰敎司司令官으로 부임하기 전인 5月21日 陸軍本部 一次會議에서 決定된 事項입니다. 바로 이 決定에 의해서 유혈강경진압을 실시를 해야 되었는데 現地에 있는 師團長인 鄭 雄將軍 31師團長은 유혈진압은 안됩니다. 政治的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尹興禎將軍도 그 尹將軍이 여기에 와서 證言한 대로 강경진압작전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月21日 陸軍本部의 首腦部가 決定한 이 강경진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將軍들은 사실상 거추장스러운 人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尹興禎將軍을 戰敎司司令官겸 戒嚴分所長에서 그 職을 면해서 一回用 반찬고식으로 遞信部長官이라고 하는 改閣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당시 소위 「투스타」였던 소위 少將이었던 證人을 電話를 걸어서 光州에 진압을 하면 昇進을 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얘기하면서 戰敎司司令官에 기용했는데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蘇俊烈 저는 전혀 그 사실과는 戒嚴會議를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요 제 자신이 가서 23日 作戰을하게 되면 昇進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 등등도 저에게는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金泳鎮委員 아닙니다. 5月20日 황영시陸軍參謀次長으로부터 처음 電話를 받았을 때 분명히 證人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進級과 관련된 얘기까지 곁들여서 하면서…

○證人 蘇俊烈 작전을 잘하면 進級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金泳鎮委員 그때 進級問題를 분명히 얘기했지요?

○證人 蘇俊烈 9월에 거기는 당연적으로 中將이 돼야 됩니다. 보직이 되면 무슨 작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9월에 軍團長人事때 아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은 23日 하는 것은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히 命을 시달할 때 당시 황영시參謀次長으로부터 9월에 昇進된다고 하는 進級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같이 서명 받은 사실이 있죠?

○證人 蘇俊烈 이 작전이 다소 수습이된 다음에…

○金泳鎮委員 바로 그것은 本委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에 상무총장작전 소위 道廳에 강경진압작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證人같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 공명성에 의해서 現地에 가서 유혈진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證人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軍首腦部는 論功行賞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證人은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證人은 단지 그 計劃의 實行자로 光州에 왔을 뿐입니다.

그랬던 證人이 오늘 午前에 우리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이 모든 責任을 바로 本人이 구상을 해서 執行을 했다 따라서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證人이 책임을 무조건 달게 받겠다고 해서 그 責任이 本人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證人이 光州부임하기 전에 5月20日 강경유혈진압작전 소위 發砲命에 대한 지시가 軍首腦部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證人은 다시 한번 똑똑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蘇俊烈 제가 거기에 대해서 良心的으로 歷史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저는 고향을 위해서 光州의 市民을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나중에 調査를 해서 어떤 處罰도 받겠습니다. 그 17名의 犧牲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히 잘못 되었다면 저는 處罰을 받겠습니다.

○金泳鎭委員 證人! 證人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향을 거명하고 있지만 참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직하게 證言하세요. 證人이 軍首腦部에 建議한 충청작전 要旨를 本委員은 조사했습니다. 證人이 戒嚴司令官에게 요청한 충청작전 그 要旨書에 보면 第1項 첫項에 光州地域 亂動者 중에는 가발사용한 者 복면한 者등 北傀의 침투를 의심케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진압을 실시해야겠다 그렇게 證人은 上部에 建議한 일이 있지요?

○證人 蘇俊烈 그런 일 없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런 일이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그것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우리 作戰計劃命숨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는데요. 무슨 그런 내용이 들려서 직접 計劃上에는...

○金泳鎭委員 여기 審議官 오세요.

○證人 蘇俊烈 그것 狀況報告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金泳鎭委員 證人이 작성한 바로 그 資料 63「페이지」에 보면 狀況報告에 나옵니다. 이런 狀況임을 報告하면서 狀況報告하고 뭐가 다릅니까?

○證人 蘇俊烈 作戰計劃을 아까 말씀했다고 지금 그래서...

○金泳鎭委員 아닙니다. 이런 狀況을 報告하면서 강경진압작전을 강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光州地域 亂動者 중에는 가발사용자... 이것 갖다 제시해요. 가발사용한 者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證人!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이 가발은 누가 그 光州 소위 抗爭의 와중에 一般인들이 가발을 쓰고 그 자리에 가서 했던 말입니까?

本委員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鄭鎬裕證人을 訊問할 때 가발을 가지러 保安司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가발은 이 情報要員들 空輸隊에 소속되어 있는 情報要員들이 전의복과 함께 가발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現場에 이 선량한 이 光州市民 속에 들어가서 工作을 감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구실로 해서 證人을 비롯한 軍首腦部들은 강경유혈작전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마저 말씀을 들으세요. 5月23日당시 모든 國民에 대해서 간담을 서늘게 했던 바로 이 光州事態의 와중에 이창범이라는 間諜이 침투를 해서 寶城海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光州事態를 조정해서 要人暗殺을 하러 하고 있다 하는 發表를 TV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했던 이 間諜 이창범은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同僚間諜들을 전부 다 다섯명이나 先發을 했다 그래서 그 功 때문에 矯導所에 있지 않고 지금 釋放을 했다 하는 것이 當局의 公式的인 答辯입니다.

또한 5月24日 아까 同僚 張石和委員이 얘기한대로 이 독침사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독침사건도 장경원이라는 사람이 間諜의 독침에 맞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후일 그것이 바로 保安司司令部에 保安司가 배후조정했던 이 調整에 의한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됐고 本委員이 全南大學校醫科大學에 가서 檢案書를 확인해보니까 전혀 독침에 대해서 증독된 사실이 없는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로 볼 때 이창범의 間諜事件에 대한 것도 사실은 工作에 의한 僞計 國民을 기만한 것입니다.

또한 독침사건도 거짓입니다. 아울러서 가발을 쓰고 들어가서 강력하게 北傀使嗾를 받은 그런 要員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道廳을 강경진압 해야겠다고 하는 證人の 狀況報告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이것은 바로 그 流血事態를 강행하기 위한 구실로서 바로 軍首腦部가 動機도 부여하고

光州市民을 두고한 市民에 대해서 共産分子가 득실거리고 있는 배후에서 조정환 흔적이 분명한데 證人은 뭐라고 이것을 答辯하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와 같은 間諜問題 毒針問題... 毒針問題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光州道廳에는 분명히 學生收拾委員會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잡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金宗培를 委員長으로 해서 各部署에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다는 그것을 잡아주어야지요. 가발쓰고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긴다든지...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道廳에는 다른 收拾委員들 김성용神父님도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金宗培學生... 지난번에 나오셨던 證人 그를 委員長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金泳鎭委員 證人! 光州市民 가운데에는 가발을 쓰고 혹은 복면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行爲가 떳떳하지 못해서

몰래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이 의로운 항거에 나설 市民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또한 光州市民 누가 共産主義使嗾 소위 不純分子의 使嗾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證人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蘇俊烈 이것은 使嗾는 아닙니다. 절대 共産主義 使嗾는 아니고...

○金泳鎭委員 그렇게 狀況報告에 證人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십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이 저희 敎訓集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金泳鎭委員 바로 證人이 27日 強硬作戰을 鎮壓하기 위한 이 狀況報告에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다른 겁니까?

○證人 蘇俊烈 아니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學生收拾對策委員들이... 거의매일 道廳 앞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群衆이 2萬 3萬... 道廳앞에서 그래가지고서 구호외치고 다한 것... 다 제가 諜報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그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本委員이 묻고 있는 答辯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사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蘇俊烈 그와 같은 상황이 光州를 빨리 收拾해야 되겠다는 저의 責任感 使命感 이런 것을 자극시켜 준것이지 이제 와서 소소한 가발쓰고 들어온 것 그것은 전체 光州 事態와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金泳鎭委員 지금 證人은 이 문제를 소소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27日 道廳鎮壓作戰을 강행하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覆面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狀況報告를 했지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工作은... 證人! 당시 保安司令部에서 將軍 한 사람이 指揮體系와는 다르게 현지에 駐屯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저도 알고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證人 蘇俊烈 그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金泳鎭委員 이름을 말씀하세요. 保安司令部 將星 한 사람이 현지에 와서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指揮했던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다음에 제가 個別的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金泳鎭委員 委員長님!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證人! 證言拒否하시는 것인가요?

○證人 蘇俊烈 아닙니다. 거부보다도...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證人 對答하세요?

○證人 蘇俊烈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委員長 文東煥 지금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 證言拒否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金泳鎭委員 保安司令部에서 現地派遣되어서 방금 本委員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을 現場指揮했던 將軍이름을 분명히 대세요 근거를 가지고 本委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證人 蘇俊烈 대겠습니다. 최예섭將軍입니다. 최예섭...

○金泳鎭委員 그런데 최예섭將軍은 准將이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런데 왜 證人은 최예섭將軍의 이름을 그 身元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발표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어차피 아실테니까...

○金泳鎭委員 바로 이 최예섭准將은 保安司令部의 당시 司令官인 全斗換씨를 代理해서 光州現地에 파견되어서 事事件件 모든 光州의 상황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工作을 指示를 하고 그리고 空輸特戰司令官인 鄭鎬溶씨와 함께 25日 서울에 올라와서 상무忠正作戰을 確定을 하고 그리고 特戰司令官인 鄭鎬溶씨는 무슨 편의복을 가지러 왔다 가발을 가지러 왔다 하는 그런 말로 그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證人! 歷史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證人이 아무리 최예섭准將에 대해서 그 身分을 비호하고 감추려해도 바로 이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證人은 언제 예편을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83年12月16일에 했습니다.

○金泳鎭委員 84年度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84年5月1日 부로 土地開發公社理事長으로 發命을 받았습니다.

○金泳鎭委員 土地開發公社理事長은 軍部隊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職責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완전히 民間人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그래서 그 民間人은 軍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또 軍兵力을 이동시킬 수도 없고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이 民間人으로서 있는 동안에 軍人을 동원한 일은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무슨 이유로 軍人을 동원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光州에서 조그마한 農場할 때

좀 支援을 받았읍니다. 그 말씀입니까?

○金泳鎭委員 좋습니다. 專門委員! 이리오세요? 寫眞 갖다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趙洪奎委員이 5分을 金泳鎭委員한테 양보했습니다.

○金泳鎭委員 감사합니다.

證人 이 寫眞을 보십니까?

○委員長 文東煥 앞으로 3分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여기 지금 이것이 어느 部隊입니까?

○證人 蘇俊烈 전혀 모르겠습니다.

○金泳鎭委員 모르십니까?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31師團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 軍部隊 油類「드럼」을 싣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部隊兵力입니까? 여기 「벤트」를 치고 정식으로 있는데 山에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모르겠습니다.

○金泳鎭委員 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확실합니까?

○證人 蘇俊烈 예. 알겠습니다. 저희 農場입니다.

○金泳鎭委員 왜 農場에 軍人이 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때 支援을 좀 받았읍니다.

○金泳鎭委員 무슨 支援입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그때 牧場을 하나 經營하는데 워낙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師團長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支援을 받았읍니다.

○金泳鎭委員 31師團長입니까?

○證人 蘇俊烈 31師團하고 11空輸도 支援받았읍니다.

○金泳鎭委員 여기는 무슨 寫眞입니까? 빨간 옷을 입은 여기는 어느 部隊입니까?

空輸部隊지요?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空輸部隊가... 國防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이 空輸部隊가... 證人웃지 마세요?

○證人 蘇俊烈 예.

○金泳鎭委員 어떻게 해서 사사로운 證人의

農場에 空輸部隊까지 動員을 하고 그리고 31 師團의 이런 裝備과 「텐트」를 쳐서... 總 얼마 동안 動員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期間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期間은 모르겠는데...

○金泳鎭委員 2個月이 넘습니다. 왜 길지 않습니까? 2個月은 짧습니까?

○證人 蘇俊烈 2個月까지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金泳鎭委員 證人! 農場에 軍人을 動員해서 사역을 시키는... 지금 民主黨에 所屬되어 있는 한 委員은 그런 사사로운 얘기를 말 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證人은 바로 參謀次長으로 부터 光州에 가서 流血鎮壓을 成功的으로 완수하면 그해 9월에 進級을 시키겠다고 하는 論功行賞부터 證人은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충실하게 中將으로 證人은 昇進을 하고 그리고 1軍司令官을 통해서 大將으로 昇進한 다음에 豫編을 해서 지금 현재도 證人은 土地開發公社理事長과 在郷軍人會 全國會長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將星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證人은... 그런데 우리 선량한 光州市民은 暴徒로 몰려서 지금도 御用 民和委에 의해서 일부 民主化運動이라고 하는 그런 옹색한 규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暴徒라고 하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光州市民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그 현장에서 지금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아직도 이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고 補償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이 마당에 특히 地域의 戒嚴分所長으로서 이런 強硬鎮壓을 통해서 光州市民을 학살한 바로 證人이 어떻게 해서 이런 권력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특히 우리 軍을 動員을 해서 신성한 軍人을 사사로운 證人의 農場에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 軍과 結탁을 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光州市民은 證人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證人 할 말씀 해보세요?

○證人 蘇俊烈 예. 兵力을 動員해서 個人的으로 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얘기는 농번기에 努力動員도 해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같은 그 地域에 있었고 또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支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金泳鎭委員 소위 軍을 사사로운 牧場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켜가지고 2個月정도 했으면서 농번기에 努力動員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證人은 검허하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證人 蘇俊烈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金泳鎭委員 그만큼 하면...

○金泳鎭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證人의 어처구니없는 非理를 잘 드러낸 같습니다.

金泳鎭委員이 얘기한데서 된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여러 委員께서 質問하시면서 쓰시는 用語에 대해서 여러가지 抗議電話가 온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달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얘기합니다.

光州事態라는 用語를 쓰시는 委員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해서 특히 光州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분개한다고 그러합니다. 앞으로 光州民主化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泳鎭委員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戒嚴軍이 光州市民을 무참하게 학살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 할 때는 光州事態입니다.

그리고 戒嚴軍의 그런 학살 만행에 저항을 한 義로운 싸움은 光州民主化運動이고 抗爭입니다. 이렇게 本委員이 表現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아니 金委員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전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께서 訊問해 주십시오 23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證人이 5月21日 午後 4時半에 光州에 내려갔다고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證人이 光州에 있는 동안에 全斗煥保安司令官이 光州에 온 일이 있지요?

○證人 蘇俊烈 저는 전연 기억이 없습니다. 만만 일이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3旅團이 지키고 있던 矯導所

옥상에 「헬」機를 타고 내려서 그 옥상에서 3旅團 幹部들하고 作戰會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거기에 근무하던 3空輸旅團所屬의 士兵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22日頃에...

○證人 蘇俊烈 22日頃입니까? 전연 報告받으
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전연 모릅니까?

○證人 蘇俊烈 예, 전연 모릅니다.

○李仁濟委員 당시 尹興禎證人의 證言에 의하
면 光州地區 保安部隊인 505保安部隊 아주
機能을 제대로 다 수행하고 있었다고 그러는
데요. 光州抗爭기간 중에도 機能이 마비되거
나 한 일 없지요? 505保安部隊?

○證人 蘇俊烈 예, 機能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李仁濟委員 市民들이 다 점령하고 했는데
그 部隊는 마비가 안 되었죠?

○證人 蘇俊烈 제가 초기에는 거기의 狀況을
잘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金泳鎮委員 證言에서 保
安司 최예섭准將이 光州에서 活動을 하고
했다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光州에
서?

○證人 蘇俊烈 제가 몇번 만난 것뿐이고...

○李仁濟委員 아! 光州에서 몇번 만났어요?

○證人 蘇俊烈 예, 제 事務室에서 몇번 만
났습니다.

○李仁濟委員 최예섭准將이 保安司의 職責이
되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잘 모르겠습니다. 合搜團의
무슨 아마 職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保安司所屬인 것만은 틀림없어
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鄭鎬裕 特戰司令官이 光州에 자
기의 말대로 하더라도 5月20日頃부터 거의
계속 있었는데 21日하고 또 5月25日밤부터
26日밤까지 그 기간만 빼놓고 참으로 중요한
期間이었대요 주로 光州에 내려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했는데 證人은 證人이 赴任
한 이후에 鄭鎬裕 司令官과 몇번정도 만나서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한 세번정도 될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예, 세번...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지금 記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는 5月23日 외곽에 있는 空輸部隊와 飛行
場에 있는 20師團을 교체하기로 하는 상의를
한 것이외에 다른 것이 안나와 있는데 또
어떤 문제를 상의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리고 그 다음에 25日일 것
입니다. 25日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마지막
特攻組 運營 그것을 위해서 어느 部隊가 道
廳을 담당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가 제일 訓
練정도가 좋은가 하는 것을...

○李仁濟委員 예, 25日 마지막 道廳鎮壓作
戰을 함에 있어서 어느 部隊를 特攻組로 運
營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예.

○李仁濟委員 25日 몇時쯤 어디서 했어요?

○證人 蘇俊烈 시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저의 事務室에서 했었습
니다.

○李仁濟委員 아! 戰敎司司令官 事務室?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그때 언제쯤 鎮壓作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때 그 말을 안했습니다.
언제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안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대략 언제쯤 한다고는
이야기 했을 것아니예요?

○證人 蘇俊烈 대략적인 얘기도 그때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하여튼 앞으로 鎮壓作戰을 해야
되겠는데...

○證人 蘇俊烈 예, 지금 對話가 도저히 안
되고 점점 이렇게 저항의 強度가 강해지면
더 많은 피해가 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하여튼 조만간 鎮壓作戰을 武力
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25日에? 鄭鎬裕司令官한테?

○證人 蘇俊烈 예, 예.

○李仁濟委員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證人 蘇俊烈 역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랬습니다.

○李仁濟委員 하는 것이 좋겠다?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鎮壓作戰을 武力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느 部隊를 特攻組로 運營하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던가요?

○證人 蘇俊烈 3空輸가 제일 訓練이 잘 되
어있는 部隊이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3空輸가 訓練이 제일 잘 되어
있으니까 3空輸를 特攻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예.

○李仁濟委員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鄭鎬溶司令官이 많이 내려와 있
었는데 鄭鎬溶特戰司令官 혼자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밑에 處長들 參謀들이
지요.

○證人 蘇俊烈 作戰參謀 그 당시 作戰參謀인
張世東大領이 가끔 수행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아! 그랬지요. 예. 張世東씨의
당시 階級이 무엇이었지요? 大領입니까?

○證人 蘇俊烈 大領입니다. 大領...

○李仁濟委員 張世東씨는 證인도 알다시피
12·12事態에 그 많은 將星들이 모여있던 景
福宮의 30警備團長이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그 張世東大領이 鄭鎬溶特
戰司令官의 作戰處長으로서 여러번 수행한 것
을 證人 알고 있지요? 보았던 말이지요?

○證人 蘇俊烈 한 두어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본 것은 아니고...

○李仁濟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3旅團하고 11
旅團 이것은 作戰統制權만 戰敎司에 넘긴 것
이기 때문에 軍需라든지 다른 行政支援은 母
體部隊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그러면 軍需處長이니 이
런 人事 行政處長이니 이런 사람들은 뭐 수
행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作戰統制權을 완전히
戰敎司에 넘겼는데 지금 特戰司令部에는 3空
輸나 11空輸만 있는 것도 아니고 7空輸만...
나머지 또 空輸旅團들이 많이 있는데 作戰處
長이 司令部를 떠나서 光州에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作戰도 鄭鎬溶씨가 관여했던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있는 期間 말씀입니까?

○李仁濟委員 예.

○證人 蘇俊烈 저희 作戰에 관여하지 않았음

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
요, 證人이 民和委에서 證言한 것을 보면
外郞에 있던 空輸部隊하고 飛行場에 있던 20
師團 兵力 交替問題를 證人이 꺼내서 鄭鎬溶
司令官하고 아주 숙의를 했더니 흔쾌히 합의
를 해주더라 이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
랬는데 鄭鎬溶司令官하고 합의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까 鄭鎬溶司令官이 그 兵力交替
못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면 證人! 그런
결정을 못했을 상황입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
었습니다. 저는 그...

○李仁濟委員 만일 鄭鎬溶司令官이 반대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證人 蘇俊烈 그분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요. 鄭鎬溶將軍이...

○李仁濟委員 아니 外郞을 차단하고 있는 兵
力이...

○證人 蘇俊烈 제가 統制하는 저의 配屬部隊
를...

○李仁濟委員 반대할 리 없으면 무엇 때문에
물어보니까? 鄭鎬溶司令官한테 무엇 때문에 물
어봐요 證人이...

○證人 蘇俊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個旅團이 제가 바로 指揮權을 인수한 지
 불과 하루 다음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
통 軍에서도 常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것이 原則적인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예. 좋아요. 자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최예섭准將하고 몇
차례나 만났습니까?

○證人 蘇俊烈 최예섭准將을 한 서너번 만났
습니다.

○李仁濟委員 서너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지요?

○證人 蘇俊烈 그분으로부터는 특별한 이야
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그분의 특수한 任務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로 얘
기가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아요. 時間이 많지 않기 때
문에... 3旅團은 5月21日 證人이 도착하던 날
일단 철수해가지고 矯導所守備를 맡게 되었지
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3旅團의 指揮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3旅團은 矯導所에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矯導所에 指揮所를 마련하고 있었지요? 11旅團은 指揮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11旅團하고 7旅團은 소태洞쪽에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소태洞쪽에 있었지요? 그리고 記錄에 보면 11旅團이 5月19日 光州에 도착을 했는데요. 7旅團은 원래 33大隊하고 35大隊는 31師團 96聯隊에 配屬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5月19日 11旅團이 도착하면서 11旅團長이 이 7旅團의 2個 大隊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3個大隊 이것을 전부 統括해서 指揮하면서 31師團長의 指揮를 받았다 이렇게 指揮體系가 되어 있었지요? 변화되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1旅團 指揮所가 소태洞에 있었는데 그것은 7旅團의 2個 大隊도 거기서 같이 指揮하고 있었던 거지요?

○證人 蘇俊烈 소태洞에 간 것은 철수를 해서 가지고 간거고...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철수해서 가있는 동안에 指揮所가... 그러면 3旅團 矯導所 指揮所하고 11旅團 소태洞 指揮所하고 證人의 戰鬪教育司令部하고 無電이 수시로 交信되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직접 통하지는 않았고요.

○李仁濟委員 그러면 3旅團하고 11旅團의 상황이 수시로 戰敎司에 報告가 됐습니까?

○證人 蘇俊烈 報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3旅團이 5月21日 밤 9時쯤에 矯導所를 접수해 가지고 방어를 시작했는데 22日하고 23日 矯導所에 市民들은 다른 외곽으로 나가는 市民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3旅團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銃擊戰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市民들이 射殺된 사실을 證人은 報告받았습니까?

○證人 蘇俊烈 나중에 받았읍니다.

○李仁濟委員 몇 명이나 射殺되었다고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蘇俊烈 6名 射殺로 제가...

○李仁濟委員 3旅團의 戰鬪詳報에는 5月22日 한名 5月23日 두名해서 세名을 射殺한 것으로 되어 있고 本委員이 당시 바로 이 戰鬪를 指揮한 士兵의 얘기를 들으니까 최소한도 30名 이상을 射殺해 가지고 假埋葬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趙甲濟記者인가 어느 雜誌에 보니까 당시에 3旅團의 大隊長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8名을 射殺해 가지고 假埋葬을 했다가 24日 그곳을 떠나면서 20師團兵力한테 인제를 했다 그래서 假埋葬된 死傷者들은 나중에 當局에 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雜誌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날 30名 안팎의 많으면 50名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市民들이 이틀동안에 射殺이 됐읍니다.

證人! 지금 報告를 6名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證人 蘇俊烈 死亡 6名 逮捕 7名 負傷 6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만일 30名 안팎으로 射殺이 되었다면 證人한테는 虛偽報告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證人 蘇俊烈 실재가 그렇다면 虛偽報告가 되겠지요

○李仁濟委員 證人에게 虛偽報告를 했으면 실제 報告를 한대도 있겠지요?

그냥 虛偽報告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나쁜 짓 한것도 아니고 矯導所에 銃들고 물러오는 市民들을 射殺했다는 것이니까 정확한 數字를 報告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만일 30餘名을 죽이고도 證人한테 6名으로 報告를 했다면 실제 數字를 報告한 계통은 따로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예요.

○證人 蘇俊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誤認射擊에 관해서 다른 委員들도 質問했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誤認射擊이 두차례 있었습니다.

5月24日 아침 9時55分頃에 封鎖部隊인 機甲學校部隊하고 湖南高速道路 光州 「인터체인저」 부근으로 나가는 31師團96聯隊 3大隊部隊하고 封鎖部隊가 機動部隊를 打撃한 事件인데요 이로 인해가지고 3名이 死亡하고 負傷이 11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事故原因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證人 蘇俊烈 그러니까 31師團 兵力이 자기 원위치인 靈光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市民軍으로부터 射擊을 받았읍니다. 射擊을 받으니 까 이 車輛이 그것을 통과해서 질주를 해 가니까 그 앞에 遮斷任務를 맡고 있던 機甲學校 兵力이 그것을 誤認해서 射擊을 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31師團 96聯隊는 누가 指揮하고 있었지요?

결국은 戰敎司 指揮部隊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戰敎司 隷下部隊입니다.

○李仁濟委員 機甲學校는...

○證人 蘇俊烈 機甲學校도 隷下部隊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두部隊의 共通上級 指揮部隊는 戰敎司이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戰敎司가 자기를 隷下部隊가 이동하는 상황을 封鎖部隊한테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아무리 소란스러운 期間中이었지만은 보통 사고는 아니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任務를 소홀히 한 것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情報處에서 소홀히 했는 作戰處에서 잘못했는... 책임 물은 일이 있어요?

○證人 蘇俊烈 그때 책임 다 물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어떻게 물었습니까?

누구를 어떤 처분을 했어요?

○證人 蘇俊烈 그때 司令部에서, 직접 하지 않고 師團에 委任한 것으로 압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내렸지요?

○證人 蘇俊烈 결과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李仁濟委員 拘束이 됐었습니까? 책임자들이...

○證人 蘇俊烈 拘束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중간에...

○李仁濟委員 拘束이 안 됐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2次 誤認射擊 이것도 같은날 오후 2時頃인데 11特攻旅團이 20師團한테 소태洞 遮斷地域을 인계하고 飛行場으로 떠날때였지요?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트럭」이 60餘臺 맨앞에는 APC의 63大隊長 趙昌九 이하 무슨 兵力들이 타고 한 60餘臺가 길게 늘어서서 이동을 하고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遮斷部隊는... 封鎖部隊는 步兵學校 矯導隊였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證人은 11空輸旅團의 指揮權을 분명히 戰敎司가 갖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11空輸旅團은 戰敎司가 갖고 있었지요.

○李仁濟委員 戰敎司가 갖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步兵學校 矯導隊 틀림없이 戰敎司 隷下部隊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11空輸旅團이 移動을 하면 移動狀況을 수시로 戰敎司에 無電으로 연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異動狀況을 無電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無電은 항상 열어 놓는것 아니겠어요? 作戰中에...

○證人 蘇俊烈 出發時間은 이미 다 作戰命令上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出發時間이 作戰命令上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出發하면서 無電이...

○證人 蘇俊烈 出發 報告는 하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出發 報告를 하면 遮斷部隊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事故가 벌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11空輸旅團이 戰敎司하고 수시로 無電交信이 안 돼가지고 出發 報告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事故가 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證人 蘇俊烈 그것은 분명히 아니구요...

步兵學校 連絡將校가...

○李仁濟委員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한심한 事故가 일어 날 수 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이것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步兵學校連絡將校가 자기의 封鎖部隊에 通報를 못 한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은 그때 분명히 밝혀져 가지고...

○李仁濟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處分을 했어요? 어떻게 責任을 물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아까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連絡將校를 懲戒委員會에 回附를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拘束이 되었나요?

○證人 蘇俊烈 拘束까지는 안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拘束까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我軍兵力이 이렇게 死亡하고 했는데 證人 그것을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證人은 지금 11空輸旅團을 證人이 반드시 公式 指揮系統에 있던 戰敎司에서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다 作戰統制를 한 것처럼 자꾸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낙특이 갑니까?

이것이 무슨 交戰地域도 아니고 외곽에서 移動하는데 대낮에 더군다나 이것은 평소에 空輸旅團하고 公式的인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는 戰敎司하고 無電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銃擊이 30分 계속 되었다는 것도 證人 인정하지요?

처음에 銃擊이 시작됐으면 당장이라도 無電은 살아있을터이고 연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30分씩이나 交戰을 하도록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證人! 완전히 統制를 못하고 있었지요? 空輸旅團兵力...

○證人 蘇俊烈 空輸旅團을 統制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統制를 하고 있었는데 步兵學校의 連絡將校의 「미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李仁濟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證人은 아까 바로 第2次 誤認射擊

11空輸하고 矯導隊하고 誤認銃擊 事故가 난것 말이지요. 이때 市民軍도 마치 發砲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證人! 확실히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證人 蘇俊烈 그때 분명히 그것은 報告를 받았읍니다.

○李仁濟委員 光州 騷擾事態分析... 戰敎司에서 나온것 여기에 誤認事故에 관한 경위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市民軍이 發砲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本委員이 알고 있고 있기로도 11旅團 60餘臺의 움직이는 맨 후미에 市民軍 「트럭」이 한 糞인가 두 糞인가 따라 갔답니다.

따라 가다가 앞에서 「로켓」砲彈이 터지고 하니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11空輸旅團 일부 兵力들이 쫓아가 가지고 잡지 못하고 억울한 良民 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것 여기 저기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時間이 많지를 않은데요. 마지막 鎮壓作戰 5月27日 이것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市民收拾委員會가 結成이 되어 있었지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時間이 없기 때문에 結論的으로 간단히 묻겠어요.

아까 李煥性씨가 證言할 때 5月21日 軍이 退却한 이후에 鎮壓作戰을 늦춘 것은 만일의 경우에 鎮壓이 제대로 안되어서 社會가 더 혼란해졌을때 北傀가 侵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極東에 있는 美軍兵力을 韓半島쪽으로 展開시키는데 時間이 필요해서 作戰을 늦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證言하는 것을 보셨지요 들었지요? 證人!

○證人 蘇俊烈 예.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묻겠습니다. 5月22日서부터 그 收拾委員會하고 證人하고 여러차례 對話가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 실제로는 對話로서 收拾한다는 것은 豫想하고 있지 않았지요? 軍에서...

○證人 蘇俊烈 저는 가능하리라고 처음에 믿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は個人的으로 그리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李煥性證人 發言하는 것 들었지 않습니까? 美軍 極東軍事力을 韓半島를 展開하는데 필요한 時間때문에 늦추었다고 發言하는 것 들으셨지요?

○證人 蘇俊烈. 그러니까 美軍이... 美 海·空軍이 거기 증원나오는 문제하고 제가 收拾하는 문제하고는 그것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證人は個人的으로 어떻게든지 對話로 해결을 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證人の個人的인 순수한 마음을 제가 꼭 否定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軍部가 實質的으로 모든 事態를 장악하고 있는 軍 實勢가 對話로 그 문제를 풀을 意志가 없었다는 것은 李煥性씨가 證言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證人이 그것을 對話를 해서 풀려고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收拾委員會側이 提示한 條件中에서 제일 못 들 어줄 것이 무엇이였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러니까 최초 收拾委員會와 접촉한 날짜와 時間이 22日 13時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뒤를 못 들어줘서 결국 對話가 안되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戒嚴解除하라 도 무슨 崔圭夏 過度內閣 물러가라 金大中씨 釋放하라 그런 문제는 저희 領域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李仁濟委員 領域을 벗어나서 못해주고 결국은 軍事作戰을 하게 됐지요.

證人이 27日 零時인가요? 作戰開始時間이...

○證人 蘇俊烈. 1時입니다.

○李仁濟委員 1시를 기해서 作戰을 하기로 最終的으로 결심한 것은 몇時입니까?

○證人 蘇俊烈. 26日 10時30分...

○李仁濟委員 26日 10時입니까?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時間이 너무 制約이 되어 있어서 한 두마디로 整理를 하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지금 質問하시는 대목만 끝내세요.

○李仁濟委員. 예. 그러겠습니다.

證人! 마지막 特攻組... 3空輸旅團에서 차출한 特攻組에 대해서 殺傷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랬지요? 具體的으로 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편종식 大尉라고 組長입니다. 그 사람한테 처음에 26日 午後 飛行場에 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거기는 右側에 朴俊炳將軍이 있었고 左側에 崔世昌將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上士로 알고 階級을 물으니 大尉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作戰의 重要性 또 意義 여러가지를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空輸部隊의 訓練의 最精銳 정도를 또 참 뭐라고 그럴까 명예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강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쓸 때는 밑에를 싸라... 生捕를 하라

○李仁濟委員 下體를 싸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지 말고 生捕를 하되 정 다급하면 下體를 싸서 무력화만 시켜라...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이렇게 부탁을 했고 다시 또 두번째 부탁한 것은 언제 어디지요?

○證人 蘇俊烈.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이 午後한 2時半 내지 3時... 점심 먹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6時頃에 또 갔습니다. 소태洞 마지막 進入地點...

○李仁濟委員 그것을 못미더워가지고 다시 갔습니까?

이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까?

다시 가서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까? 편大尉한테...

○證人 蘇俊烈. 예. 같은 내용입니다.

○李仁濟委員 편大尉 特攻組는 3旅團所屬 大尉지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證人은 그것을 指揮하는 上級 指揮官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李仁濟委員 證人이 空輸旅團을 指揮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야만 될 정도였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正常的인 作戰과는 根本的으로 성격이 다른 作戰이었읍니다. 이 作戰은... 이것은 作戰이라는 말보다도 수습이기 때문에 제가...

○李仁濟委員 다시 한번 묻습니다.

證人! 그러면 그것은 鎮壓作戰이 아닙니까?

軍事作戰이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물론 收拾作戰이지요.

○李仁濟委員 作戰이지요? 證人이 명령하면 명령하는대로 따라야되는 것이지요? 部隊員들은...

○證人 蘇俊烈 알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알겠습니까가 아니라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證人이 空輸部隊에 대한 證人の 指揮權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나 사정 정도 밖에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편大尉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證人이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으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런데 저는 指揮權.....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自認하신 것 같아요. 李仁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辛卿植委員님 訊問해 주십시오.

25分입니다.

○辛卿植委員 民主正義黨所屬 辛卿植委員입니다.

證人께서는 아침부터 긴 時間동안 저희가 궁금히 생각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소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몇가지 또 저대로 좀 궁금한 것을 訊問하도록 하겠습니다.

27日 作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數日前 新聞에 보면 그날 27日 作戰 끝난 뒤에 全南道廳構內에 屍體가 30具가 있었다. 그렇게 상세히 報道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報道를 보고 저는 國防部하고 陸軍本部에 文書檢證을 가서 그 점을 그 당시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20師團 作戰參謀를 했다는 威德善將軍이 그날 그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威將軍 얘기로는 그 30具의 屍體는 그날 그 새벽에 作戰으로 인해서 피살된 屍身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전날 또 그 전날 그 市內에서 慰靈祭 또 追悼式 그런 행사를 위해서 光州道廳에 事前에 運柩해 놓았던 屍體입니다 하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려져 있는 도

표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16具가 있고 또 좀 간격이 떨어져서 14具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치도 나란히 놓여있고 또 그 中에는 이미 入棺되어 있는 屍身도 있었다고 威將軍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라 그랬는지 그 날 新聞에 30具 屍體가 다시 또 거기서 확인되었다 하니까 참 國民들에게 준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證人께서는 그 13名 이외에는 절대 道廳內에서 그 날 人命被害가 없었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그 30具의 屍身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蘇俊烈 그 威將軍 말과 마찬가지로 그 전의 屍體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辛卿植委員 그 作戰이전에 그쪽에 그렇게 屍身을 모아놓았다는 그런 情報은 혹시 듣지 못했나요?

○證人 蘇俊烈 있었습니다.

○辛卿植委員 알고 있었어요?

○證人 蘇俊烈 尙武館도 있고 道廳에도 있고 여러번 報告를 받았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리고 27日 鎮壓作戰時期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25일부터 이른바 強硬派라는 사람들이 道廳內에 한 300餘名以上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80年 5月26日 作成된 光州地方檢察廳 狀況日誌에 보면 強硬鬭爭派들이 무책임하게 TNT로 自爆하겠다고 戒嚴當局에 위협 이날 아침부터 池元洞쪽에서 和順方面으로 많은 避難民이 걸어나가고 있으며 「테모」軍의 道廳 爆破 威脅으로 道廳周邊住民은 모두 疏開한 상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危險負擔이 아주 많은 시기에 왜 作戰을 실시했는가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김창길學生이라는 소위 穩健派學生들이 道廳을 장악하고 있을 24日이라든지 23日이라든지 그 무렵에 오히려 道廳을 진압을 했더라면 더 피해가 적지 않았겠는가? 왜 이런 위험한 시기에 했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同僚委員이 有民事態를 자초하고 間諜이나 毒針事件이 없는데 그런 제일 위험한 시기에 거기를 쳐들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고 오히려 意圖的으로 그런 事態를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質問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蘇俊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끝에 質問말씀에 穩健派가 지배하고 있던 23日이나 24日이 適期가 아니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對話를 통해서 武器를 스스로 반납하고 자진해산해서 우리가 法秩序를 회복하는 이런 서로의 約束期間입니다. 그러니까 穩健派는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는 완전히 強硬派에 의해서 主導權이 장악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爆發物 거기에 信管이나 雷管을 제거하는 작업을 그와 같이 협조를 해서 했고 또 한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6日 새벽 4時半에 소위 두가지 目的을 가진 作戰을 했습니다.

하나는 工團내거리로부터 「틀케이트」에 이르는 道路를 확보함으로써 31師團에 이르는 主要公路를 확보를 하고 또 한가지는 市民의 抵抗強度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해서 戰車 2臺를 앞세워가지고 農村振興院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계획된 線보다 한 1.5km 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당시 김성용神父님이나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戒嚴軍이 안들어온다고 해놓고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매우 항의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저희 副司令官이 나가가지고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그때 行動目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읍니다.

이것은 市內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두가지 目的 이렇게 말씀을 드리 가지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루쯤 늦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情況을 감안할 때에 27日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26日 作戰會議를 한 것입니다.

○辛卿植委員 그러면 아까 同僚委員이 말씀을 했는데 그 27日 作戰決定狀況에 鄭鎬溶 당시 特戰司令官이 관여를 했었습니까?

○證人 蘇俊烈 鄭鎬溶特戰司令官이 관여했다는 것을 굳이 꼬집는다면 特定目標에 대한 使用部隊를 저와 상의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 機

動計劃이나 또는 行動時間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결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鄭鎬溶將軍은 26日밤 10時50分頃에 와가지고 戒嚴司令官이 잘 모르고 있더라 아! 이미 作戰하라고 해놓은 이유를 모르고 있느냐 그래도 報告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 1時지요. 行動開始하는 것을 제가 11時頃에 報告를 했습니다.

○辛卿植委員 그 당시 27日 作戰에 대해서 혹시 美國側과 무슨 협의가 없었나 또 현재로서는 美國側이 그 作戰에 직접 관여했다는 證據는 없습니다마는 22日 戰敎司司令官으로 취임해가지고 27日 狀況이 끝나는 그 기간동안에 혹시 美國側으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또는 무슨 문의라도 있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蘇俊烈 저하교의 직접 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 美國側과의 관계에 대해서 電文이 온 것은 23日까지인가 아까 李煥性將軍께서 말씀이 제시 것으로 압니다마는 무슨 海·空軍이 增員될 때까지 作戰行動을 중지하라 이런 電文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美國과의 아무런 관계가 저는 없었습니다.

○辛卿植委員 27日 作戰이 끝난 뒤에 21師團은 그후에 6月까지 계속 거기에 상주해 있었고 그 있는 동안에도 市民들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21師團長이하 全將兵들이 部隊表彰도 받고 勳章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으로서 勳章을 상진할 때 證人이 거기에 혹시 관여를 했는지 또 그후에 평가할 때 과연 作戰狀況이 그 任務遂行에 있어서 勳章을 탈만한 그러한 행위를 했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證人 蘇俊烈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統計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戰敎司에는 3個가 나왔읍니다. 勳章 3個가 할당이 되었는데 仁憲... 그격이하의 것입니다. 보통 仁憲이 花郎 忠武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때에 步兵學校는 사고가 있어서 주지 않았고 砲兵學校하고 機甲學校에 제가 할당을 한 것으로 기억을 다시 統計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師團에 대한 勳章은 그것도 역시

統計에 의한 확인입니다마는 9個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戰敎司 功績審査委員會에서 功績審査委員會는 보통 副司令官내지 參謀長이 委員長이 되어가지고 一般 參謀들이 審査를 합니다

그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卿植委員 이제까지 自衛權行使關係에 많이 들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證人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證人은 5月22日 上午 10時30분에 戒嚴分所長으로서 自衛權行使指針을 시달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自衛權行使指針을 시달하기 전에 上部에 이러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또는 시달하게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것은 아마 辛委員님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月21日 19時30分인가 電文을 내려가지고 ...

○辛卿植委員 그것은 陸軍本部에서 概況說明을 한 것이고.....

○證人 蘇俊烈 陸軍本部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移牒下達한 것이 21時몇分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指揮權을 행사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날이지요.

○辛卿植委員 그러면 證人이 그 자리 간 뒤로는 自衛權關係는 전혀 무슨 요청을 했는지 指示하고 한 사항이 없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없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리고 證人이 가던날 5月21日 16時에 作戰統制權을 31師團에서 戰敎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1師團이 거기 郷土師團이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作戰權을 戰敎司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아까도 제가 몇번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에는 7空輸의 2個大隊만을 作戰配屬받아 가지고 指揮를 하니까 師團長으로서의 指揮幅이 좁았는데 그 후에 점점 11空輸 3空輸 등이 추가되니까 역시 指揮幅이 좀 「오버」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와 같은 조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시 尹興禎司令官께서 措置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리고 光州民主化運動이 확대된 根本原因이 過剩鎮壓에 있고 또 그 過剩鎮壓을 초래한 騷擾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5月18日 19日 20日 21日 제일 피해가 컸던 그 당시에 光州地域에는 31師團 郷土師團이 있었고 또 그 郷土師團에 배속된 空輸部隊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空輸部隊는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指揮權은 31師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배속되어 있었지요. 指揮權이 師團長한테 있었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러면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31師團長에게 귀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證人은 그후 부임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31師團長에 대해서 한번 經緯를 추궁해 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27日 作戰이 수습이 종료되고 6月初에 鄭 雄將軍이 가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그후에 다시 추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추궁을 안 했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러나 上級機關의 機關長으로 가지고 自己隸下部隊長이 그러한 큰 사태를 벌여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真相을 糾明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證人 蘇俊烈 그때는 상황을 수습하고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워낙 그때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신경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辛卿植委員 당시 師團長이었던 鄭 雄將軍은 空輸隊가 너무 과격하게 過剩鎮壓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만류했었고 그후에 자기는 소외되고 또 자기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 師團長이 空輸隊가 너무 過剩鎮壓을 한다 이것을 하지 않게 해 달라 그러한 것을 혹시 戰敎司 上部에 요청을 했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또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 電文을 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가기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20日頃으로 대략 아는데 電文을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辛卿植委員 5月27日 道廳鎮壓作戰時에 31師團은 어떤 役割을 지가서 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外廓으로부터 責任地域을 進入해서 연계를 하는데 그 부대는 연계할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섹터」를 주어가지고 進入해서 市를 장악하는 그런 任務를 주었습니다.

○辛卿植委員 市內의 作戰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구만요.

○證人 蘇俊烈 어떤 特定 目標나 이것은 없고 그것은 空輸部隊가 하는 것이니까 20師團하고 같이 並行해가지고서 全南紡織 方向을 進軍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辛卿植委員 아까 누차 死亡者關係가 나왔습니까? 27日 狀況以後에 戒嚴司에서 光州에 대한 死亡者 數字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발표할때마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特定國民들에게 의혹감을 주고 불신감을 주고 그러저 않았나 생각하는데 80年5月31日 1次 戒嚴司發表時에 170名이 死亡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6月5日 2次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174名이라고 발표를 했고……

○證人 蘇俊烈 예. 맞습니다.

○辛卿植委員 7月25日 3次 발표 때는 189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한 10餘日 차이로 발표할때마다 數字가 달라지니까 무슨 暗埋藏說이다 또 清掃車에다가 屍身을 무더기로 실고가서 어디다 묻었나보다 1,000名 이상 죽었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발표가 서로 틀렸던 이유 또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蘇俊烈 사태가 종료된 후에 저는 사실 死亡者에 대한 확인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新聞紙上 다른 報道媒體를 통해가지고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파악되는 數字가 늘어났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지금도 어디 있는지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벌써 몇번 申告延長期間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기로는요. 錦南路에 있는 某洋服店 주인인데 시체를 검시해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때 그런 報告

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칼빈」인지 아니면 M16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발굴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분 하나 포기한 것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런 數字는 방금 저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後半期를 指揮했던 사람으로서 다만 몇 사람이 죽었든지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 하면 받겠습니다.

○辛卿植委員 아까 또 同僚委員이 지적을 했는데 마대를 급히 공수를 해 가지고 그 많은 수량을 光州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선 선입감이 마대를 가져갔으니까 이것 무슨 큰 많은 犧牲者가 나서 이 사람들을 마대에 어떻게 둘들 맡아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선입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놀랐고 그 후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마대는 길이가 約 50cm 되고 넓이가 30cm 되는 모래를 퍼부어 가지고 쌓아놓는 軍에서 쓰는 그런 마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證人으로 나오는 혹시 그 동안 作戰에 직접 관여했던 實務陣에서 여기서 그 때 공수했던 그마대를 직접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50cm 25cm 그런 마대라고 들었는데 軍에서 직접 그 마대가 공수되고 또 그것이 거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했는데……

○證人 蘇俊烈 저는 분명히 모릅니다.

○辛卿植委員 대개 軍에서 쓰는 마대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作戰에 쓰는 마대……

○證人 蘇俊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모의 마대입니다. 「샌드백」이라고 해 가지고 모래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시체를 넣을 수 있는 마대는 軍에서 쓰지 않습니다.

○辛卿植委員 글썩 이것이 우리가 같은 말이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여러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證人 蘇俊烈 3萬5,000枚라면 마대사용 행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辛卿植委員 저희들이 여기서 質問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확실한 證據를 가지고 그 證據에만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서로 확인하기도 편하고 오해가 없었습니다마는 質問하는 사람들 우리 委員들중에 저 자신도 100% 確證만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聽聞會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여기 앉아 계신 한 委員께서 「데모」隊도 없는데 장갑차에서 총을 쏘아 가지고 19살 먹은 學生이 총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聽聞會 끝나는 그 시각에 本人에게 전화가 國會로 왔습니다. 자기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물론 어떤 다른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정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本人이 듣기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해명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光州民主化運動에 대해서 오늘도 누차 언급되었습시다마는 眞相이 많이 歪曲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作戰에 책임을 질 그 狀況속에서 가장 光州問題에 直接的으로 관여했던 證人으로서 지금 어떠한 眞相이 歪曲됐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 주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調查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證人 蘇俊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鎮壓作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밝혔습시다마는 저는 光州에 도착해 가지고 軍警이 철수된... 전연 治安不在의 狀況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光州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宣撫談話文을 했습니다. 또 바로 야까 말씀드린 收容對策委員들과의 대화도 갖고 그러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회생을 줄이고 光州市民의 生活를 안

정스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며칠동안 잠도 못잤습니다 그때 사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생을 냈기 때문에 결코 저는 그 作戰을 성공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특히 영령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복을 빌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밝혀져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85年度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張世東 安企部長을 찾아 가서 단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初期鎮壓의 과잉이 원인이었다 光州市民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응분의 補償을 해주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안 들어 주더군요. 지금도 그 생각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辛卿植委員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辛卿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平和民主黨의 趙洪奎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15分입니다.

○趙洪奎委員 光州直轄市 光山區出身 趙洪奎委員입니다.

具體的으로 사실은 이미 대체로 지적이 되었으므로 다른 차원에서 몇가지 證人께 묻겠습니다.

소위 光州民主化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1980年5月18日부터 5月27日까지 戒嚴軍側의 무자비한 過激鎮壓과 光州市民들의 처절한 抗爭을 말하는 것입니다.

證人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두움을 넘어 라는 책 보신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그 책은 못보았습니다.

○趙洪奎委員 作戰命令 화려한 休暇는 이 책은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그것은 보았습니다.

○趙洪奎委員 이러한 책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光州市民側의 抗爭史는 대체로 眞相이 들어나 있습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소위 戒嚴軍側의 鎮壓史 大量虐殺史 그 비밀 그 의혹이 밝혀지지 않

아서 밤늦도록 聽聞會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그래서 당시 戒嚴分所長인 證인이... 證人の 證言이 매우 중요합니다. 本委員은 證人の 發言에 대한 訊問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本質的인 문제와 관련없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창수 全南前知事 아십니까?

○證人 蘇俊烈 아닙니다.

○趙洪奎委員 혹시 김상원씨든지 이태식씨든지 김상복씨든지 이런 분들은 아십니까?

○證人 蘇俊烈 잘 압니다.

○趙洪奎委員 잘 아시지요. 그 분들이 저를 얼마전에 찾아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사실은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문장수씨가 간 것은 압니다.

○趙洪奎委員 例를들면 證人の 中學校 同期同窓인 김상원씨 김상복씨 이태식씨 이런 분들이 찾아온 사실은 모르죠.

○證人 蘇俊烈 모릅니다.

○趙洪奎委員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證人の 가까운 친구들이 한 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世上事는 그렇게 다 證人이 안다고 말한 것처럼 다 알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것은 고향 사람이니 證人을 어느 방향에서 할 것이냐 묻기도 하고 기왕이면 고향 사람 시속말로 잘 봐달라는 이야기까지 합디다. 證人은 그런 사실들을 몰라요 내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이제 證人の 지금까지의 證言에서 대체로 1980年 5月22日 이후에 있었던 소위 戒嚴分所長으로서 戒嚴軍側에 있었던 일을 대체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주 쉬운 예로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것을 불었던 것입니다.

證人! 이제 얼마나 證人이 모르는가를 묻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만 빨리빨리 答辯해 주세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證人이 1985年 5月 22日 午前 10時에 戒嚴分所長으로 指揮權을 받았는데 證人の 證言대로 例外的 人事措置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취임하신 것이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예외적인 人事措置를 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證人 蘇俊烈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잘 모르시지요? 당일 그때쯤 5月22日 陸軍本部에서는 소위 湖南사람이 湖南出身 領官級들을 소집한 것은 아십니까?

○證人 蘇俊烈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모르시지요? 당시 상황이 光州에서 일어난 문제라 湖南出身으로 宣撫鎮壓해 보려는 그런 책동이 있었다는 것도 證人이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光州 소위 民主化運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 처럼 5月18日 19日 20日 21日까지 4일간 證人도 아까 證言하신 것처럼 空輸部隊의 過剩鎮壓 무자비한 鎮壓 그 鎮壓期間이 있었고 그 다음 證人이 指揮權을 갖게 된 22日 23日 24日 25日 26日 밤까지 5일간은 소위 小康狀態로서 대처한 기간이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27日은 證人の 證言대로 완전히 소위 證人の 말대로라면 成功的作戰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大量虐殺을 한 그러한 사건으로서 열흘간의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소위 5月18일부터 시작해서 27日 새벽까지 있었던 열흘간의 사건을 대체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民主化運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事件 우리가 지금 그 真相을 알려는 사건의 주된 기간은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證人께서 소위 일부 5·17 軍事「쿠데타」를 일으킨 일부 政治軍人들의 命命에 충실한 일부 空輸部隊 특히 空輸部隊를 말씀드립니다. 空輸部隊가 그 5·17 軍事「쿠데타」 光州를 왜 자기들이 投入되어 가지고 徵發되어서 投入되었는지 왜 이렇게 強壓的인 鎮壓을 해야 되는지 그 영문도 잘 모르고 政治的 意味도 모르고 上部의 命命대로 자기 直系 指揮官의 命命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證人 蘇俊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특히 全斗煥 소위 陸士 11期 全斗煥將軍을 비롯한 사람들이 정권장악을 기도해서 그것에 저항한 光州市民들이 그것을 殺傷한 事件이 그 事件인데 그당시 그 政治的 意味 소위 5·17非常戒嚴擴大措置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光州市民들이 抗爭을 하고 한 그 政治的 意味를 그당시 알았습니까? 證人께서 모르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몰랐습니다.

○趙洪奎委員 또 모르시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5·17軍事「쿠데타」主動勢力들이 어디서 특히 서울이나 光州에서 무슨 작당을 하고 무슨 음모를 하고 무슨 計劃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證人 모르게 進行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모릅니다.

제가 알 턱이 없지요.

○趙洪奎委員 알 턱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또 證人은 5月21일부터 27日까지 7日間에 있어서 옛새동안을 光州에서 常駐하다시피 하고 光州하고 서울을 오르락 내리락 한 鄭鎬溶將軍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듭니다.

소위 證人의 營內에 있는 狀況室옆에 소위 特戰司指揮本部를 설치했던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趙洪奎委員 다시 말하면 證人의 바로 部隊內에서 있었던 일도 具體的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것을 설치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셨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證人께서 5月 20日 赴任 이후에 5月27日 鎮壓할 때까지 서울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없으시지요? 예를 들면 그당시의 「쿠데타」의 最高 主動者 全斗煥保安司令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電話通話한 적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전혀 없으시지요?

○證人 蘇俊烈 전혀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全斗煥將軍이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全體的으로 運轉을 전혀 모르시지요? 本人에게도 직접 안 했었니까 全斗煥將軍이 무엇을 한것을 전혀 모르지요?

○證人 蘇俊烈 예, 전혀 모릅니다.

○趙洪奎委員 예,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證人 蘇俊烈 저는 오직 光州事態收拾에만 전념했습니다.

○趙洪奎委員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證人이 또 證言하기를 合搜部의 李鶴樺大領이라든지 이런 保安司의 中堅幹部들 소위 나중에 5·17「쿠데타」의 核心部隊 5共和國樹立의 核心要員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그 사람들이 光州를 왔다 갔다 한 사실 왜 왔다 갔다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아마 合搜團에 왔을 것입니다.

○趙洪奎委員 合搜團에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隸下部隊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證人께서는 兪公 회大主教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證人이 就任하기 전에 무자비한 空輸部隊의 학살이 있었다 살육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화로 얘기하셨다고 했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18日 19日 20日 21日까지 光州市內에서 空輸部隊가 具體的으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정말 市民의 입장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心理的 實質的 고통을 당했는지를 參謀를 통해서라든지 兪公 회大主教 전화라든지 친척 친지를 통해서만 알았지 本人이 직접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렇기 때문에 光州市民들이 지금 뼈아파하는 것 가슴아파 하는지 울분 분함 그런 것을 具體的으로 實證的으로 잘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제가 직접 肉眼으로 목격은 못했습니다.

○趙洪奎委員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

지요? 22일부터 27日 새벽까지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다고 해도 그때에 光州市의 直接的인 상황은 직접은 모르시지요? 전부 報告를 받거나 그러시지 직접 진입해서 光州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蘇俊烈 光州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한번 제의를 했는데...

○趙洪奎委員 기지에서 具體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까는 무슨 여러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러지만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證人 蘇俊烈 모릅니다.

○趙洪奎委員 報告를 통해서 그러는데 그 報告 자체가 바른 報告인지 적당히 만든 報告인지 保安司側에서 써낸 報告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現地의 實質的인 상황은 그러시지요?

○證人 蘇俊烈 그 중에서 比較的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 研究員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趙洪奎委員 그렇게 間接的으로 받은 報告는 아시지 具體的인 것은 잘 모르시다...

예를들면 諜報活動을 保安司면 保安司 保安隊 같은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그런 쪽은 잘 모르시지요?

○證人 蘇俊烈 잘 모릅니다.

○趙洪奎委員 또 예를 들면 誤認射擊 상황을 아까 잘 아신 것 처럼 얘기했지마는 그것도 報告를 통해서 아신 것이지요? 그 現場에 있었지는 않았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지요.

○趙洪奎委員 또 屍身들 같은 경우 檢査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檢査한 분들의 報告받고 알지 本人이 직접 屍身檢査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직접하지 않았습니니다.

○趙洪奎委員 또 예를들면 矯導所 습격 그것도 報告 받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여섯번씩 있었다든지 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다 報告지 證人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시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독침事件 조작한 것같은 것도 더욱 그러시고...

○證人 蘇俊烈 그것은 조작한 것은 나중에...

○趙洪奎委員 나타난 것도 나중에 報告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들면 마지막으로 道廳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상자 숫자가 얼마인지 전부 報告지 證人이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시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대체로 구체적인 상황도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證人께서 모르시는 것을 또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아까 武器被奪問題 같은 것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하셨는데 무기를 피탈이라고 말씀하시고 대체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被奪된 것이 豫備軍武器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豫備軍 武器입니다.

○趙洪奎委員 그런데 문제는 豫備軍 아닌 사람이 피탈해가야 되는데 그 豫備軍들이 銃을 가지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하면 被奪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豫備軍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自己所屬部隊 銃을...

○證人 蘇俊烈 제가 報告 받기로는 豫備軍이 市民軍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豫備軍이 들어가서 門마가지고 자기 銃을 자기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번째 아시아自動車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防衛産業體라고 그러셨지요? 그 안에 勞動者들이 銃 들고 「서디」물고 나왔어 그런 사실 報告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被奪받은 것만 報告 받았지요...

○證人 蘇俊烈 아시아自動車 상황도 나중에 報告 받았습니니다.

○趙洪奎委員 나중에 報告 받았습니까?

어떻게 報告 받았습니까?

○證人 蘇俊烈 직접 물고 나왔다고 하고...

○趙洪奎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被奪이 아니지 않아요? 그 勞動者들이 工場 主人들인데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被奪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證人 蘇俊烈 正常的인 使用目的이 아니니까...

○趙洪奎委員 마지막으로 26日밤 鄭鎬裕將軍이

證人에게 잘못하면 歷史의 罪人이 되니까 李
炳性 戒嚴司令官에게 報告하자고 그래서 報告
하셨지요? 收拾鎮壓作戰...

○證人 蘇俊烈 報告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렇게 저한테...

○趙洪奎委員 鄭鎬溶將軍이 말씀하셔서 하셨지
요?

○證人 蘇俊烈 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래서 그날 밤에 아까 片大尉
애기도 나오고 그럼니다마는 特戰司를 쫓아가
서 사정도 하고 회생을 적재 해 날라고도
하고 그 때에 「헬리콥터」를 타고보니까 光州
는 적막의 都市였다고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證人の 눈에는 적막의 도시에도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市民의 立場에서 평온
의 都市예요. 平和의 都市...

그런것도 모르면서 鎮壓하실 때 정확히 모
르자 않아요?

또 한가지 묻습니다.

아까 李光魯 前 將軍出身委員이 訊問할 때
예를 들면 警備兵 희생이 없었던 것은 그
당시 軍紀가 문란하거나 部隊指揮를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할때 맞습니다 하셨지요?

警備兵 소위 哨所지키는 사람들이 武器를
被奪 당하는데 한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없
는 것은 軍紀가 잘못되었거나 그 指揮官이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아까 맞습니다. 그랬지요?

○證人 蘇俊烈 步哨가 있어야만 될 곳에 步
哨가 없으니까 軍紀가 잘못된 것이지요?

○趙洪奎委員 그런데 步哨가 왜 없었느냐?
이것을 물어볼때니까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대
답해 보세요. 왜 步哨가 없었느냐 부당한
殺傷하는 大量虐殺하는 命令 그 自衛權을 받
동하는 命令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生命을 지
키고자 한 市民들이 銃을 들었어! 市民들의
自衛權發動이야! 그 市民들의 自衛權發動이
정당하기 때문에 步哨들이 市民들 편에 섰어
요. 戒嚴軍들의 自衛權發動은 부당하고 市民
들의 自衛權發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市民
軍의 自衛權發動에 섰다는 사실 같은 것은
그당시는 모르셨지요?

○證人 蘇俊烈 알겠습니다.

○趙洪奎委員 물을 말씀이 많습시다마는 마지

막으로 한가지만 묻습니다.

5月21日 午後에 戒嚴軍이 철수했지요? 그
것이 市民들이 銃을 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철수했습니까?

○證人 蘇俊烈 市民들이 銃도 銃이지만 그때
상황이 세가 내내 모르는 것만 들었기 때문
에 말씀인데 직접 안 보았기 때문에... 그
런데 APC하고 自動車로 해 가지고 밀렸다
고 합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10餘萬 市民이 밀고왔
지요. 그러니까 銃을 쏘는데도 나죽이라 하고
들어온거지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철수했지
요?

○證人 蘇俊烈 그리고 그때 報告는 全日「빌
딩」쪽에서도 일대 射擊이 있었고...

○趙洪奎委員 射擊이 있었던것은 全日「빌딩」은
이미 그당시에 戒嚴軍들이 장악했던 「빌딩」이
니까 나중에 그것을 밀어내고 하는 것은 市
民軍들이고 全日「빌딩」에서 銃 쏘것은 그전에
市民軍이 승리하기 전에 이미 戒嚴軍들이 설
치한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具體的인것은 현
장에서 나보다 모르니까 얘기마시고 무슨 얘
기냐 하면 20日 銃때문에 市民軍의 銃이 나
타난 이유만으로 철수했느냐 그것이에요.

市民軍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銃을 무서워하
지 않고 市民들이 道廳 앞을 향해서 戒嚴軍
을 향해서 오니까 할 수 없이 철수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市民軍의 소위 힘에 밀려서 철수했던 것이
아닙니까? 銃은 부수적인 것이예요 市民軍들
이 銃든 것은...

그래서 마지막 27日 새벽 그 作戰같은 경
우도 만일 그 21日 이후에 市民軍들이 자기
들의 生命을 지키기 위해서 銃을 들지 않
았다면 그전에 보무도 당당히 戒嚴軍이 다시
再進入해서 재보복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市民들이 銃을 안들고 있었다면 그렇지요?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이미 再鎮壓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못했지요?

○證人 蘇俊烈 그렇지요.

○趙洪奎委員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22日부터 26日까지 證人이 말씀한 대로 市民

의 희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市民들 銃은 희생을 적게 한 市民의 입장에서 보면 市民의 입장에서 市民을 방어한 銃이예요. 戒嚴軍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戒嚴軍이 든 銃은 殺傷用 銃이지만 市民들이 들고 있는 총은 市民들의 생명을 지키는 市民防禦用 銃이란 말입니다.

어느 銃이 市民軍이 갖고 있었던 銃이 그 당시 正當性與否를 관두고 그 國民의 생명을 지켰는가 戒嚴軍이 갖고 있었던 銃이 생명을 지켰는가는 자명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市民軍이 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強壓의 인 진압을 않고 기습타격작전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戒嚴軍들이 銃쓰고 들어왔을 것이 아니에요?

○證人 蘇俊烈 그렇지 않지요. 어디를 총쏘고 들어 갑니까?

○趙洪奎委員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證人께서는 光州 근처에 潭陽에 農場을 가지고 계시죠?

○證人 蘇俊烈 예.

○趙洪奎委員 언제 農場을 마련하셨습니까?

○證人 蘇俊烈 제가 農場을 가지게 된 동기는 豫編 5日後에 같이 豫編한 黃永時將軍이 그 당시 大統領으로부터 光州부근에 가서 農場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참 제가 그것을 망설였습니다. 도저히 그때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 그로부터 한 두달반 約석 달후에 그 당시 保安司令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農場에 가라는데 왜 안가느냐 하는 식이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金昶植 知事하고 얘기해 가지고서 國有地 그것을 한 6町步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證人! 證人の 입장에서 는 證人の 證言態度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生活하시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일신의 富貴와 榮華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하실지 모르지만 光州市民의 입장 특히 湖南사람들의 전체의 입장 또 우리 市民 우리 國民 전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스러운 歷史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아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證人께서 뭐 아신다고 그러고 軍人의 입장이라고 그러고 여러가지 證言하신 그 證言내용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새롭게 그 被害者들의 또 우리 歷史를 毀謗이 되거나 자극을 하거나 하는 입장이 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으로 證人の 1次的인 證言은 끝납니다마는 그러나 證人이 특히 湖南出身將軍으로서 名譽와 故鄕에 대한 愛鄉心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 光州特委活動에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씀을 드리면서 저의 訊問을 마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蘇俊烈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시는 삶이 떳떳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15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熿 太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敏 燮	鄭 東 鎬	鄭 昌 和
趙 榮 藏	金 泳 鎭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卞 滿 鎬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榮 龜	金 潤 煥	金 政 吉
金 鍾 坤	李 台 燮	張 慶 宇
洪 世 基	金 元 基	朴 錫 武
朴 實	朴 鍾 泰	朴 載 圭
金 鎔 采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李熿性(前 戒嚴司令官)
蘇俊烈(前 全南北戒嚴分所長)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榮藏	安榮基	民主正義黨

(12月12日字)